

리아호나




**사랑: 순수한 종교의
본질, 4, 14쪽**

**종교적 자유: 공평함에 대한
메시지, 22쪽**

**나는 어떻게 자살 충동을
극복했는가, 30쪽**

**워드 평의회: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도구, 34쪽**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니파이후서 31:20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사랑, 그다음은?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부모라는 성스러운 의무

특집 기사

- 14 순수한 종교의 실천
돈 알 클라크 장로
순수한 종교를 실천함으로써 구주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 20 십일조, 타이밍, 교통편
아칠리오 코이칭호 구즈만
십일조로 낼 돈을 빼면 교회까지 갈
차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 22 신앙, 공평, 그리고 종교적 자유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공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감으로써, 여러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구주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 30 삶을 선택하다: 자살 충동 극복
익명
세상의 빛이 있었기에 나는 계절성
우울증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34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제이콥 알 존스
계시를 구하고 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에 옮기려 했던 한 와드
평의회 노력의 결실을 보자.

교회 본부 기사

- 10 단상: 노래하는 메이블 자매
알 발 존슨
- 11 교회에서 봉사하며:
봉사를 통해 받은 축복
존 에이 그린세리
- 12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쌍둥이를 기다리며 얻은 기적
셰릴 라파팅 라 토레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시온의 큰 장애물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22



표지
앞표지: 그분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그림의 일부.
제이 커크 리차즈
앞표지 안쪽 사진: 필립 클링거 © Getty Images.
뒤표지 안쪽 사진: 레스 날슨

청년 성인

청소년

어린이

44



44 중립 지대란 없다: 미디어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
에이시아 탄
미디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 어느 한쪽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48 청년 성인 소개
호주에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다
벤 로빈슨
캘린 브룩스는 청력을 상실했는데도 호주에서 주님의 사업을 서두르는 일에 힘을 보탤다.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여러분은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느냐?

- 50** 선교 임지에서 레베카에게 가 보아라
민디 레이 프리드먼
- 52** 포스터:
빛을 바라보십시오
- 53** 해답을 찾아서
충실하게 생활하기가 힘든가?
선지자의 가르침에 의구심이 드는가?
- 54** 바느질 수업과 두 번째 기회
벨렌 차파로
피아노 선생님에게 복음을 나눌 기회를 놓쳐 버리고 난 뒤 새롭게 찾아온 기회는 절대 놓칠 수 없었다.
- 56** 계명 = 사랑
살럿 라카발
계명과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 58** 나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왜 몰몬경인가?
엘빈 제롬 라세다
- 60**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화되어
최윤환 장로
경전을 공부하고 선지자를 따름으로써 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었다.
- 63**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64 우리들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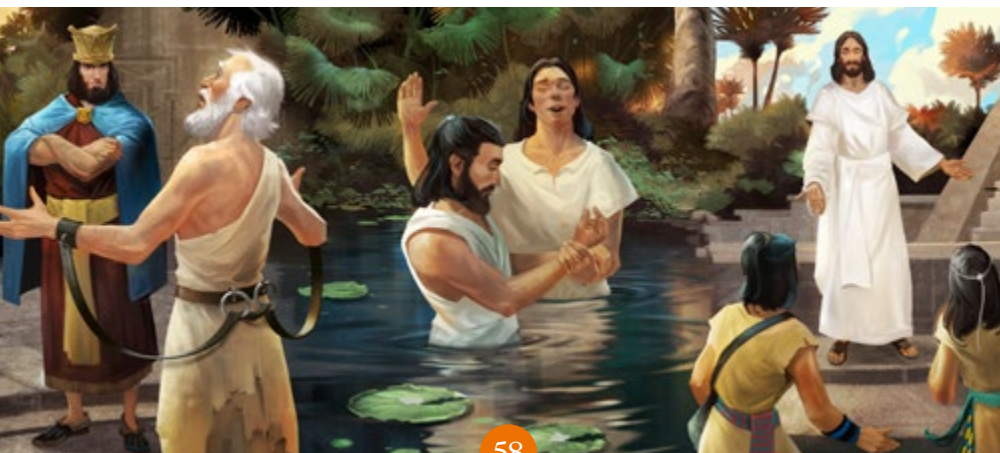


65

- 65**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나요?
애비 에프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다.
- 66**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닐 에프 매리엇
우리는 이생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 68**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어린이들: 별-씨 선교사
제나 코포드
제스는 유타 주에 관한 학교 과제를 준비함으로써 복음을 나누었다.
- 70** 엘리스 지켜 주기
메릴리 부른
대니얼은 여동생 때문에 답답했었지만 이제는 동생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72 사도들의 답변:
구주의 속죄는 왜 중요한가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73** 우리들 이야기
- 74**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 75** 나는 몰몬경을 읽을 수 있어요
- 76** 몰몬경 이야기: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신 예수님
- 79** 색칠하기:
나는 우리 가족을 도울 수 있어요



58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후르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화: 라셀 엠 벨슨, 델린 에이치 오스, 엠 라셀 벨라드,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다도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게리 이 스티븐슨, 테일 지 랜렌드

편집인: 조셉 더블유 시타디

부편집인: 제임스 비 마르티노, 캐럴 에프 맥콩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에쉬튼, 랜달 케이 베네토, 크레이그 에이 카든, 켈절 에이 에스플린, 크리스토퍼 골드, 더글라스 디 홀스, 래리 알 로렌스, 캐롤 엠 스티븐스

관리 책임자: 피터 에프 에번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집지 책임자: 엘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보조: 매간 사이츠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리니 비에티, 데이비드 닉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폴리토, 로리 풀러, 게렛 에이치 가르, 라리 포터 건드, 질 크리스틴 해킹, 살렘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셸리 존슨 오데커, 조슈아 제이 파키, 잭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민디 앤 셸루, 폴 빈덴버그, 머리아 윌슨

편집 인턴: 린 크랜달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제넷 앤드류, 패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클린 힐글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킵 엠 무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레이철 스티미스,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큰호스트

디자인 인턴: 켈시 마르티네즈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솔프 브릿지, 줄리 벤틀,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날슨, 가일 에이트 러퍼디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우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천슨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store.lds.org에 접속하거나 해당 지역 교회 배부 센터나 워드, 자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 신청 및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목: 제606호, 제53권, 제9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6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구로 자하문로 152

인쇄: 한국한글정보(주) 채중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집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 교회 집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iahona.lds.org로 보내 주시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 ("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아나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미어, 서브어, 세투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6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September 2016 Vol. 40 No. 9.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가정의 밤에 활용할 만한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계명 = 사랑”, 56쪽: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을 거스르고 싶은 유혹을 느꼈던 상황에 관해 묻는다. 혼잡한 거리에서 놀거나 특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일들이 그런 예가 될 수 있다. 부모가 왜 그런 규칙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자녀들에게 물어본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기사를 활용하여 이 원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에 적용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까닭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명이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됨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으로써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일 수 있다.

“엘리스 지켜 주기”, 70쪽: 이 기사는 대니얼이라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이다. 건강상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둔 대니얼은 동생을 사랑하면서도 가끔은 동생 때문에 화가 난다. 자녀들과 함께 기사를 읽어 본다. 대니얼이 어떻게 동생에게 사랑을 보였는지 자녀들에게 물어본 다음, 대니얼이 보여 준 모범을 따라서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서로 사랑을 보일 수 있을지 함께 방법을 찾아본다.

인터넷 활용하기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는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facebook.com/iahona.magazine](https://www.facebook.com/iahona.magazine)에 가서 영감에 찬 메시지, 가정의 밤 제언, 그리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본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만 제공됩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7, 12, 79

간증, 58

감사, 63

경전 공부, 60

계명, 4, 56

괴롭힘, 65

교만, 80

기도, 66

기술, 44

물문경, 54, 58, 74, 75, 76

미디어, 44

발전, 40

봉사, 11, 41, 79

부름, 11, 34

부모의 본분, 7

빛, 30, 52

사랑, 4, 56, 66, 70, 74

선교 사업, 42, 43, 48, 54, 68

선지자를 따름, 53, 60

성신, 41

세미나리, 60

소망, 52

속죄, 72

순종, 4, 53, 56, 60

시련, 12, 40, 64

신앙, 11, 22, 48

십일조, 20

예수 그리스도, 4, 22, 30, 65, 72, 74

우울증, 30

전세, 53

종교적 자유, 22

평의회, 34

헌신, 10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사랑, 그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사랑은 복음의 정수”¹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사랑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부르셨으며,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사랑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²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모임, 모든 행위는 이러한 속성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³

일단 이러한 사실을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선언하고 나면,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과 사랑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까?

두 아들의 비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장로들이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그분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로 전세를 역전시키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맏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다음으로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확답했으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은 맏아들, 곧 가지 않겠다고 했으나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고 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⁴

이 이야기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중요한 원리는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⁵ 이 종교 교사들은 자신들이 말한 바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에 관해 말하기를 좋아하였으나 그 본질은 놓쳤습니다.

행위와 우리의 구원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것 중 하나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악인과 의인은 분리되어, 선한 자들은 영생을 상속받고 악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입니다.

이 두 무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랑을 행위로써 보인 자들은 구원받았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정죄받았다는 것입니다.⁶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이 지닌 가치 및 원리로 개종했는지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행하는 행위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영생을 누릴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⁷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한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고도 쉽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그분께로 향하게 되고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쓸 것입니다.⁸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⁹에게 구조의 손길을 뻗게 됩니다. 이렇게 연민과 봉사라는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기 때문입니다.¹⁰

이것이 사랑 다음에 할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정수입니다.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랑—복음의 정수”,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1쪽.
2. 마태복음 22:36~40 참조.
3. 모로나이서 7:46~47 참조.
4. 마태복음 21:28~32 참조.
5. 마태복음 23:3 참조.
6. 마태복음 25:31~46 참조.
7. 마태복음 7:21.
8. 요한복음 14:15 참조.
9. 교리와 성약 52:40.
10. 모사야서 18:8~9 참조.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우 흐트도르프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란, 행위로써 그분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그분께로 향하게 되고 제자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가르친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제자의 길을 걷는 데 사랑이 어떤 식으로 동기를 유발했는지 물어본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도 좋다.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위를 하도록 더 많은 사랑과 힘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권유한다.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이라 하면 보통 가장 먼저 낭만적인 영화, 초콜릿, 꽃 등을 떠올린다. 그렇지만 사랑, 곧 참된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이타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사실, 두 가지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다.(마태복음 22:36~40 참조)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까?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를 위해 일한 아들과 그렇게 하지 않은 아들이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를 언급한다. 구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만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돌아가기 원한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일 수 있는가?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에게 구조의 손길을 뻗게 됩니다. 이렇게 연민과 봉사라는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부모, 형제자매, 또는 친구를 만나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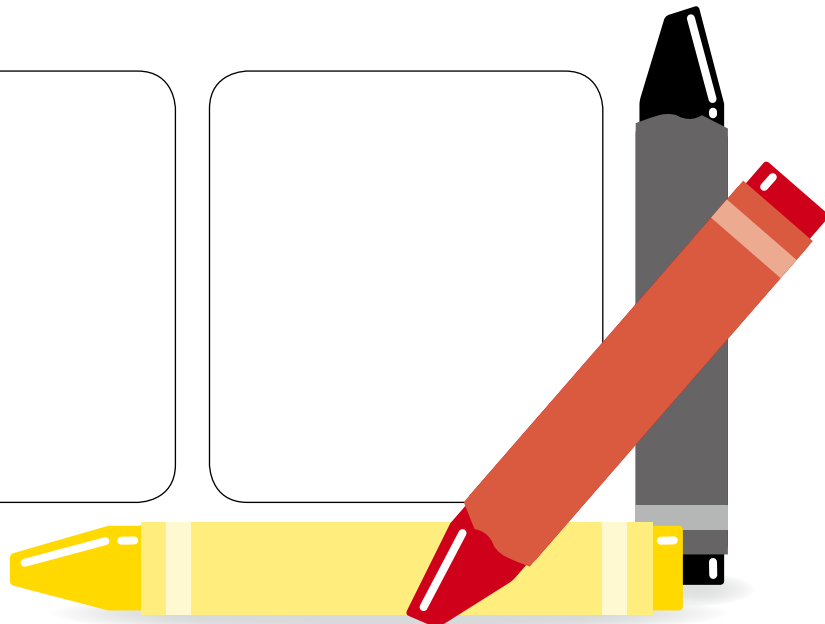
어린이

사랑을 보여 주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포도원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도와 달라고 했어요.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포도원에 와서 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둘째 아들은 돕겠다는 말만 하고 도와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께 더 많은 사랑을 보였다고 가르치셨어요.

이 이야기대로 해 보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보여 드릴지 세 가지 일을 쓰거나 그려 보세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고 여러분이 방문 교육을 통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ds.org에서 알아볼 수 있다.



신앙, 가족, 구제

이야기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오래전에 신문을 읽고 있는데 어린 손자가 옆에 와 앉은 적이 있습니다. 신문을 읽는 동안 신문 너머로 제 손자의 귀여운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금 후, 손자가 신문과 제 사이로 들어와서는 제 얼굴을 손으로 잡고 자기 코로 제 코를 누르면서 '할아버지! 거기 계산 거 맞아요?'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 거기에 있다는 말은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교감한다는 의미입니다. 교감한다는 것은 그저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계획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

... 저는 살아갈수록 청소년 시기에 가르침을 얻은 시간들, 특히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그런 시간이 제 인생에 영향을 주고 제 인격을 다듬어 주었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닫습니다."⁴

부모라는 성스러운 의무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사랑이 깃든 공간에서 올바른 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가족을 제정하셨다.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자녀를 칭찬하고 안아 주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고, 항상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¹

전 본부 청년 회장인 수잔 터블유 태너 자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따라야 할 방식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인내를 보이시고 선택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 때때로 '가르친다'는 뜻의 훈육이 비난과 혼동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뿐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람도 비난을 받을 때보다 사랑과 격려를 받을 때 품행이 더 향상됩니다."²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가정에서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 신권 축복 및 안식일 준수를 충실히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 험난한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 하늘에 있는 영원한 가정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³

보충 성구

니파이전서 8:37; 제3니파이 22:13; 교리와 성약 93:40; 121:41

생각해 볼 점

사랑이 담긴 말과 모범이 복음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이유는 무엇인가?

주

1.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 "선지자의 권고: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리아호나*, 2011년 8월호, 4쪽.
2. 수잔 터블유 태너, "내가 말했었니 ...?",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4쪽.
3. 쿠엔틴 엘 쿡, "주는 나의 빛",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64쪽.
4. 로버트 디 헤일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부모와 지도자의 임무",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95, 96쪽.

2016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6년 4월 연차 대회를 다시 읽으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다.



교리 살펴보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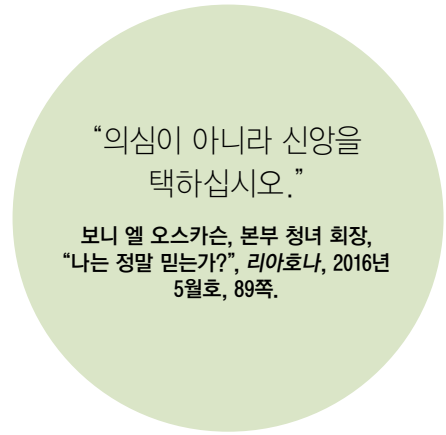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에 결국 불공평이란 없을 것입니다. 삶에 대해 불공평한 모든 것이 … 올바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52쪽] 우리가 현재 놓인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연민과 친절, 사랑 덕분에 우리는 모두 자신이 갖춘 자격보다, 능력보다, 그리고 소망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너희] 눈에서 닦아 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요한계시록 21:4]”

데일 지 렌렌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42쪽.

여러분을 위한 해답

각 연차 대회 때마다, 선지자와 사도들은 교회 회원들이 갖고 있을 만한 질문에 대한 영감 어린 답변을 제시한다. 2016년 5월호나 conference.lds.org에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 가족 평의회는 네 가지 유형은 무엇이며 그것은 왜 중요한가? — 엠 러셀 벨라드, “가족 평의회”, 63쪽 참조.
- 우리는 어떻게 성전에 갈 준비를 하는가? — 쿠엔틴 엘 쿡, “성전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라”, 97쪽 참조.
- 신권 열쇠란 무엇인가? — 게리 이스티븐슨, “신권 열쇠와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29쪽 참조.



conference.lds.org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습니다.



구조

이 지상에서 ... 세상의 부정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얼룩지게 하며, 우리의 생득권과 목적을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참된 본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신성함은 남아 있습니다. ...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 속에서 괴로워하거나, 의심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그의 길 잃은 양을 찾아내듯이, 여러분이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구주께로 돌린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들어 올리고 그분의 어깨에 메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그분은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04쪽.

미래에 맡게 될 역할

때로는 여러 명의 연사들이 같은 복음 주제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미래에 맡게 될 역할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세 연사의 말씀입니다.

- “청남 여러분 ...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자녀들에게 순결함을 더해 줄 수 있도록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아버지”, 96쪽.
- “여러분이 각자의 시간과 상황에 따라, 이웃과 지역 사회에 사는 난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린다 케이 버튼, “나그네 되었을 때에”, 14쪽.
-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찾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면서 사랑이 넘치고, 그 관계를 오래 지속하며, 더욱 완벽한 관계를 이루려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결혼과 가족을 수호하는 이들을 칭송하며”, 78쪽.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훌륭한 일화

훌륭한 일화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다음은 대회에서 소개된 여러 일화 중 몇 가지 예이다.

- 아기가 그들에게 인봉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남미의 부부에게 위안을 준 것은 어떤 교리였는가?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평안을 구하는 방식”, 90쪽 참조.
- 위태로운 상황의 어린 아들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아동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그 엄마가 얻은 깨달음은 무엇이었는가? —보니 엘 오스카슨, “나는 정말 믿는가?”, 87쪽 참조.
- 제사 정원회 지도자는 어떻게 그가 돌보는 제사들 중 한 명을 교회로 돌아오게 했는가? —머빈 비 아놀드, “우리는 구조할 수 있습니다”, 53쪽 참조.



노래하는 메이블 자매

알 발 존슨
교회 잡지

메이블 자매님의 노래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열정은 괴로를 지경이었다.

웃음이 터지려고 하자 내 가장 친한 친구가 팔꿈치로 옆구리를 찔렀다. 우리는 성찬식 모임 중이었기에 성찬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그렇지만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고, 팻은 나만큼이나 웃음을 참기 힘들어했다.

당시 열다섯 살이었던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 우리 와드에 다니는 모든 사람은 완벽해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찬식 모임의 말씀은 고무적이어야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루하기만 하다는 것을. 그리고 영을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할 찬송가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영이라고는 느낄 수 없게 만드는, 이 세상 최악의 음치가 우리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말이다.

정말이지 귀를 막고 움츠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따금 들리는 웃음소리가 그나마 도움이 되는 듯했다.

우리는 메이블 자매님(그녀의 이름, 내가 기억하기로 그것은 사람들이 그녀를 부르던 유일한 이름이었다.)이 자신의 목소리가 듣기 괴로운 걸 알지만 개의치 않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노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분명한 것은 아무도 자매님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비록 연세가 있으셨으나, 자매님은

엄청난 분이셨다. 체구에서가 아니라, 기력에서였다. 자매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힘이 넘쳤고 우렁찼다. 노래를 부르실 때는 특히 그랬다.

노래에 대한 자매님의 열정은 회중과 함께 찬송을 부를 때뿐만 아니라 와드 합창단에서도 표출되었다. 그 열정은 억누를 수 없는 것이었다. 자매님이 회중과 함께 찬송을 부를 때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은 본 적이 없지만, 합창단에서는 마치 고삐가 풀린 것처럼 마음대로 부르셨고, 이 세상 어떤 여가수도 흉내 내지 못할 듯한 고음과 음폭을 자랑하셨다. 별로 흉내 내고 싶지도 않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이 일은 오래전 일이다. 그때 이후로 시간이 흘러, 메이블 자매님은



돌아가셨다. 팻과 나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적어도 나는, 내가 열다섯 살이었을 때 스스로 안다고 여겼던 만큼 잘 알지는 못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과거 50년 동안 인생, 그리고 노래에 대한 몇 가지를 배웠다고 생각한다.

인생은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매 순간이 소중하며, 한 번 지나간 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을 뿐이다. 만일 누군가에게 봉사하거나 주님을 섬기려 한다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그렇게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동시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을 배웠다.

이 지상에서 누구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또한 배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면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의 헌신을 충분하다고 여기신다.

역설적이게도, 노래와 관련해서 내가 메이블 자매님보다 전혀 나은 것이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내가 자매님에게 보였던 것보다 내 와드 회원들이 나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 주기를 바랄 뿐이다. 자매님이 여전히 여기 있다면,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자매님의 천사 같은 목소리가 그림다. ■

봉사를 통해 받은 축복

존 에이 그린세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기뻐하시기에 내가 아무리 많이 봉사하더라도 그분에게 계속하여 빛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 근에 내가 연사로서 소개되었을 때, 사회를 맡으신 분이 정중히 감독,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과 같은 좀 더 두드러진 나의 과거 교회 부름들을 언급했다. 그 형제님은 예의를 차리려 그러신 것이었지만, '왜 나를 와드 선교 책임자(현재 부름)나 조금 덜 알려진 부름으로는 소개하시지 않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모든 부름에서 같은 영의 인도를 느꼈고, 각각의 부름이 모두 보람 있는 것들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어느 부름에서든 언제나 주님의 인도를 구했고, 한 번도 인도를 받지 못했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봉사하느냐에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가 눈에 띄는 부름에서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부름이 무엇이든 겸손하게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멸과 영생의 면류관"(교리와 성약 81:6)을 받으리라고 믿는다. 구주께서는 말씀하셨다.

"머리는 발더러 이르기를 나는 발이 필요 없다 하지 말지니, 발 없이 그 몸이 어찌 설 수 있으리요?

또한 몸은 모든 지체를 필요로 하나니,

이는 모두가 함께 교화되며 전체 조직이 온전히 보전되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84:109~110)

나는 살아오면서 몇 가지 교회 부름들을 두려워한 적이 있었다. 내게 주어질 만한 어떤 부름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김없이 그 부름이 내게 주어졌다. 그런 부름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신앙이 요구되었고 경전에 나오는 약속들을 의지해야만 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니이다."(니파이전서 3:7)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디모데후서 1:7)

때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그 부름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름과 그 부름을 받게 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부름을 거부할 때 그 부름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며, 그 사람이 대신 성장하고 봉사를 통해 축복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58:32 참조)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기뻐하시기에 내가 아무리 많이 봉사하더라도 그분에게 계속하여 빛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참으로, 그분의 왕국에 대한 우리의 봉사로 인해 그분께서는 상상 이상으로 나와 내 가족들을 축복해 주셨다. ■

글쓴이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에 산다.

쌍둥이를 기다리며 얻은 기적

세릴 라파팅 라 토레

우리 삶은 모두 순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내 일은 복잡하게 꼬여만
갔다. 또 어떤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나는 잔뜩 겁을 먹었다.



어느 날 밤, 뉴스를 보고 있던 나는 무언가에 시선이 쏠렸다. 가만히 보니, 뉴스의 기자가 바로 대학 친구였다. 그 친구는 뉴스 진행자가 되겠다던 꿈을 이룬 것이다!

“나는 뭘 한 거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성취한 일은 무엇일까?” 나는 내 품에 안겨 잠든 아기를 바라보며 지난 삼 년간의 일들을 돌아보았다.

나는 직장을 가지고 커리어를 쌓으리라 늘 생각해 왔다. 하지만 남편 찰스와 나에게 큰딸, 쉐비가 태어났을 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나는 딸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었고, 십일조를 내고 계명에 순종한다면 다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남편 찰스가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이 생겼다. 다 잘될 거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만 했다. 결국은 나도 일을 찾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우리 둘은 모두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몇 주 후, 나는 콜센터에 취직이 되었다. 아홉 달 된 딸아이를 매일 보모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괴로웠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까,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찰스도 금세 직장을 구했다. 보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었다. 그 바람에 한동안은 마음이 가벼웠다.

하지만 임신을 하고 나니 몸이 많이 힘들어, 나는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런데 매달 받는 정기 검진에서 내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깜짝 놀랐다. 찰스와 나는 두려운 맘이 들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다.

임신한 지 3개월 반쯤 된 어느 날, 잠에서 깨어 보니 하혈을 하고 있었다.

유산이 진행되는 것 같아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다. 아기들은 괜찮았지만, 의사는 출산 전까지 병상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점점 일이 꼬여만 가고 있었다. 병원비를 내느라 은행 계좌는 텅 비었고, 얼마 안 되는 찰스의 수입으로는 생활을 꾸려 가기도 벅찼다. 나 자신이 아무 쓸모 없이 느껴졌다. 돈을 벌 수도, 그렇다고 쉼비를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때로는 내 안에 두 명의 특별한 영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곤 했다. 매일 밤낮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평안을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다. 또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앓을까 나는 잔뜩 겁을 먹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이 계속 떠올랐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었다.

인간힘을 다하고 있기는 찰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강인하게 버텨 내고 있었다. 찰스는 나를 도우면서도 직장 일에 쉼비까지 돌보고 있었다. 찰스의 신권 축복으로 나는 위안을 얻었다. 그의 사랑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두렵기도 했으나 우리는 이 새로운 시험을 함께 맞서 나갔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나는 온 힘을 다했다. 별 의미 없는 것들에 관심을 쏟거나 빈둥거리는 대신, 나는 경전과 교회 잡지, 그리고 양서를 읽었다. 찬송가도 불렀다. 특별히 “굳도다 그 기초”(찬송가, 35장)는 정말이지, 큰 변화를 불러왔다. 나는 구주와 더 가까워졌다. 우리가 맞선 이런 상황에도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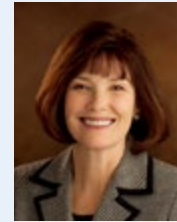
깨달았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꼈다.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대 주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그들의 사랑과 관심이 느껴졌다.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는 매일 한두 명의 자매들이 나를 방문하도록 지명해 주었다. 자매님들은 식료품을 가져다주고, 요리와 청소도 해 주고, 쉼비를 돌봐 주고, 영적인 생각을 나누며 기운을 북돋워 주었다. 내가 빨리 회복되도록, 그리고 쌍둥이가 건강하도록 기도도 해주었다. 우리 가족은 한 번도 배를 곯은 적이 없었다. 자매님들의 봉사로 내 짐이 얼마나 가뭄해졌는지 그분들은 모른다. 때가 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수월한 분만을 하도록 도우셨다. 쌍둥이 딸들도 모두 건강했다.

그런 힘겹던 시간을 겪은 뒤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던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 지금은 경제적인 상황도 훨씬 좋아졌고 자녀들도 영특하고 재능 많은 아이로 자라고 있다. 미래에 시련이 닥칠지 모르나, 우리는 더 강해졌고 잘 준비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시기에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결코 아무런 도움이나 위안 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삶이란 만만한 여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

글쓴이는 필리핀에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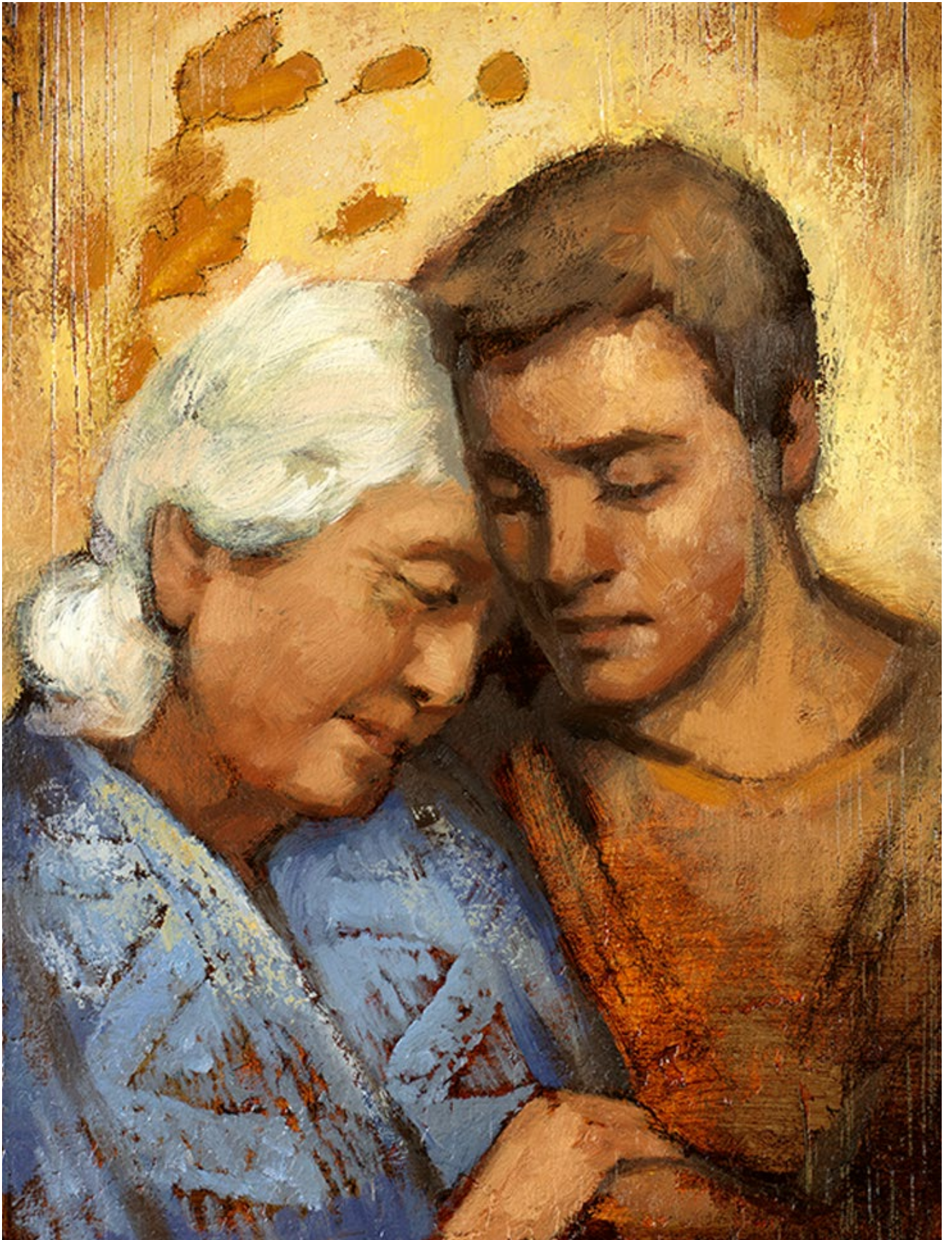
목적에 있는 시련



“우리가 왜 수많은 시련을 겪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 보상은 너무도

위대하고 영원하며, 영속적이고 기쁜 것이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라, 보상을 받는 그날에 우리는 자비롭고 관대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게 그 정도뿐이었나요?” …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와 함께 영생을 얻고 하나님 왕국에서 승영을 누릴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 여기서 고난을 겪는다 한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린다 에스 리브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11쪽.





돈 알 클라크 장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함

순수한 종교의 실천

행복해지고, 성신을 느끼며, 구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면, 순수한 종교를 실천하십시오.

2년 전 한 젊은이가 선교 사업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편의상 그를 존이라 부르겠습니다.

“클라크 장로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좋아했죠. 저를 변화시켰으니까요. 그렇지만 선교 임지에서 느꼈던, 그 성스럽고 특별한 느낌 일부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선교 임지에서 느낀 것들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일을 여러 차례 보아 왔습니다. 그 젊은이가 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행복해지고, 성신을 느끼며, 구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7절을 펴서 다음 성구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교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다음에는 열마서 34장 28절을 읽었습니다. “만일 궁핍한 자와, 헐벗은 자를 물리치며, 병들어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가진 것이 있을 때, 곤궁에 처한 자들에게 너희의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이러한 일 중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의 기도는 헛되고, 너희에게 무익하며, 너희는 신앙을 부인하는 위선자와 같음이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와 그 외 사도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구주의 말을 듣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식사를 한 후, 베드로와 구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 시간이 머지않아 선지자이자 교회 회장이 될 이 사도를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구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구주께서 이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구주께서는 같은 질문을 두 차례 더 한 다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3~17 참조.)

베드로는 실제로 순수한 종교를 실천하라는, 즉 사람들을 보살피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랑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순수한 종교를 실천하는 훌륭한 본보기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온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제 친구 존과 같은 귀환 선교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왜 선교 사업을 좋아했느냐고 물으면, 거의

한결같이 그들은 사람들을 사랑했기에 그랬다고 말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자신보다 남을 더 신경 쓰고 보살피기 시작하는 날부터 그들은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더 행복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보살피는 것의 반대는 나 자신, 내 자동차, 내 학업, 내 직장, 내 문제만 신경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만 매여 있다면, 우리와 하늘과의 관계는 필요한 만큼 강해지지 못합니다.

저는 존에게 순수한 종교를 실천하면 행복해지고 선교 사업에서 느낀 것과 같은 느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성신을 느끼며, 구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면, 순수한 종교를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성구에서 순수한 종교로 정의할 수 있는 네 가지 핵심 실천 사항을 배웁니다.

1. 남편을 여인 부인을 방문하고 보살핀다

존은 대학으로 돌아가 우리가 논의한 바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후에 존은 제게 이메일을 보내어 보조 요양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교회 잡지에 나오는 영감 어린 이야기를 읽어 드린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영이 단순한 진리와 간증이 참됨을 증거하자, 많은 분이 구주에게서 오는 큰 사랑과 도움을 느끼시더군요.” 존은 이렇게 썼습니다. “연고가 거의 없는 낯선 분들과 더불어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절한 영혼들에 대한 구주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심한 치매나 신체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을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휘장 저편에서 이분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이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제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노라니, 한 번도 뵈지 못한 할아버지께서 곁에 계시는 것이 느껴졌고, 그분의 영이 저를 강화하고 도우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제 소박한 방문을 고마워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존의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것처럼 친절한 자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곳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저 텔레비전이나 보거나 그냥 쉬기만 하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 일은 저를 변화시켰으며,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든 그분들을 돕고자 애쓴다면, 하루 중 언제라도 이런 포근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존을 축복하셨듯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2. 고아들을 돕는다

세계 곳곳에는 고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아이와 관계를 맺고 규칙적으로 편지를 쓴다면 훌륭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 네이트도 선교 사업에서 귀환했을 때 제 친구 존과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네이트는 일대일 후원 관계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어른들과 짝지어 주는 프로그램의 멘토에 자원했습니다. 그 봉사로 네이트의 대학 시절 경험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네이트는 결혼했는데, 네이트와 그의 아내 칼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금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가진 것을 궁핍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그들의 결혼생활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 메리 앤과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선교부에서 봉사할 때, 고아인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호킨스 장로의 훈련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가 최고의 훈련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호킨스 장로는 주님의 선교사가 된 고아 소년에게 최고의 동반자였습니다.

호킨스 장로의 부모님은 아들이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이 동반자에게 편지를 썼고, 지난 15년 동안 계속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고아 소년은 호킨스 장로와 그의 부모님 덕택에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으며, 지금은 행복하게 결혼하여, 직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변화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사람으로 쓰실 만큼 우리를 신뢰하실까요? 우리를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는 사람으로 믿고 의지하실 수 있을까요?



3. 궁핍한 사람들을 돌본다

경진은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중요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¹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확대하는 한 가지 방법은 후한 금식 현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분지에 온 첫해에 저에게는 수확 때까지 가족을 먹일 밀가루가 넉넉하지 않았으며 …, 사람들은 빵을 얻으려고 날마다 집에 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일로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옛 요새를 돌아보러 갔는데, 저는 기분이 말끔하게 나아진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오. 그냥 돌려보낸다면 우리는 추수가 오기 전에 음식이 없어 고통을 당할 것이고, 집에 오는 모든 이에게 아낌없이 준다면 헤쳐 나가기에 넉넉한 밀가루를 갖게 될 것이오.’ …

저는 추수 때까지 제 빵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음식이 부족하여 곤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원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를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 입증했기에, 이 원리가 참됨을 압니다.”²

다음 경험담은 미국 콜로라도의 한 물리학자가 어느 기독교 웹사이트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그가 차를 타고 달리던 중

갑자기 엔진이 툭툭거리다가 멈췄고, 그는 때마침 앞에 있던 주유소까지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견인차를 부르려 하는데, 한 여자가 주유기로 낡은 차에 기름을 넣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괜찮은지 보려고 차에서 나가 그곳에 가 보니, 그녀는 넘어진 사실보다 뭔가 다른 일로 더 흐느껴 울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눈 아래에 드리워진 다크 서클만 봐도 한눈에 몹시 지쳐 보였다. 그녀를 도와 일으키려는데 무언가를 떨어뜨리길래 주워서 그녀에게 주었다. 5센트짜리 동전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울고 있는 여자, 오래된 고물차, 차에 가득 실린 잡동사니, 그리고 카시트에 앉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뒷좌석에 있는 세 명의 아이들, 그리고 4달러 95센트를 가리키고 있는 주유기. 나는 그녀에게 괜찮은지, 또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녀는 이런 말만 계속할 뿐이었다. ‘애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 물리학자는 그녀가 처한 상황을 알자 신용 카드를 꺼낸 뒤, 그녀의 차에 기름을 가득 넣은 다음, 주유소 옆에 있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산 먹을 것이 담긴 두 개의 큰 봉지와 몇 가지 상품권을 그녀와 아이들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이름을 밝힌 후, [미국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에 산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애인은 두 달 전에 곁을 떠났으며, 그녀는 가족을 제대로 부양할 수 없었다. … 마침내 그녀는 절망 상태에서 약 5년 동안 연락을 끊은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부모는 와서 함께 살아도 좋으며, 그곳에서 자리를 잡도록 힘쓰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차 안에 싸 넣었던 것이다.”

그 박사는 그녀를 안아 주었고, 가는 길이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뒤 그가 자기 차로 돌아가려 하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천사이신가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도구로 쓰시죠.”

그런 후 이렇게 자신의 느낌을 적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기적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 내가 차로 돌아왔을 때, 차는 바로 시동이 걸렸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일단 확인을 위해 내일 차를 정비소에 맡기겠지만, 정비공은 아마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할 듯싶다.”³

주님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사람으로 쓰실 만큼

우리를 신뢰하실까요? 우리를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는 사람으로 믿고 의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의 속삭임을 더 많이 따를수록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될 기회를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4. 주님의 양들을 먹인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실 때, 그분의 첫 번째 당부는 “내 양을 먹이라”였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양들을 먹이면, 잃은 양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도움이 필요한 남동생이나 여동생, 조카, 또는 다른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그들에게 훌륭한 본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양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을 찾고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구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당부하셨듯이,

목자로서 양들을 보살피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남편을 여인 부인을 방문하고 보살피며, 고아들을 돕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며, 구주의 양들을 먹임으로써 우리가 순수한 종교를 실천할 때, 우리는 구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분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 행복해지고, 성신을 느끼며, 구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

2015년 1월 13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 “Pure Religion”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제프리 알 홀런드,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40~42쪽 참조.
2. Brigham Young, “Remarks,” *Deseret News*, June 18, 1856, 116.
3. “Friends Are God’s Way of Taking Care of Us”, lisburn.com/stories/friends_are_gods_way.html.



우리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제가 형제를 지키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제게는 형제가 있으며, 저는 ‘받은 것 많아 나누며 ... 살아야 합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42쪽.





십일조, 타이밍, 교통편

아칠리오 코이칭호 구즈만

어느 토요일, 아내와 나는 다음 날 교회에 갈 교통비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금 인출을 할 방법도 없었다. 이미 십일조는 감독님께 드리려고 기부 봉투에 넣어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우리는 교회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십일조로 낼 돈이기는 했지만 교회에 가기 위한 교통비로 쓴다면 주님께서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다른 방법은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 같았다. 전에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교회를 가지 않으면 감독님에게 십일조를 드릴 수 없으니, 이것도 해결책은 아니었다.

그저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 마음으로 우리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서 교회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아름다운 안식일에 우리는 예배당을 향해 길을 나섰다. 그곳은 우리 집에서 5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있었다. 그렇게 걸어가는 일이 우리 네 아이들에게는 (첫째는 만 여섯 살이었다) 활동 모임과 같았다. 가는 내내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니고 장난을 쳤다.

넓고 위험한 도로가 나오는 지점에 다다르자, “지금 길을 건너야 한다”라는 성신의 음성이 들렸다. 아내에게 말을 하니, 도로 일부가 굽어서 오는 차들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할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여기서 길을 건너야 할 것 같다며, 아내와 함께 각자 아이를 두 명씩 데리고 재빨리 길을 건넜다. 우리가 막 인도로 올라서자, 차 한 대가 옆에 멈춰



교회에 갈 차비가 없던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서터니, “교회에 가는 길이세요?” 하고 운전자가 물었다.

그 운전자는 우리 와드 소속은 아니었지만 내가 그 형제의 와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기에 서로 안면이 있는 터였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니, 그는 우리를 교회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차에 타자, 그 형제는 원래 이 길은 자신이 다니는 길이 아닌데 직장 동료가 사무실 열쇠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자신의 열쇠를 그 동료에게 갖다 주느라 지나가던 참이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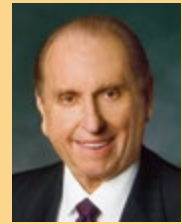
하지만 나는 이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 갈 차편이 필요했음을 아셨다. 주머니에

고이 넣어 둔 십일조 덕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십일조를 낼 때 얻는 축복에 대해 가르칠 수 있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예배당에 일찍 도착했지만 기쁘고 감사했다. 우리는 모든 모임에 참석했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상파울루의 여름은 무척 덥다. 특히 교회 모임이 끝나는 한낮에는 더욱 그렇다.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 누가 우리에게 와서 “집에 데려다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하고 물었다. 없다고 대답하니,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하는 것이었다. 그의 호의를 받아들이며 아내와 나는 따뜻한 웃음을 머금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 큰 축복을 주셨다. ■

저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산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충만해지며, 덜 복잡해진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당면 과제나 문제를 더 쉽게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선택할 자유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기에,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계명을 지키라”,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83, 84쪽.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장로
심이사도 정원회

신앙, 공평, 그리고 종교적 자유

공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권고를 따를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향한
구주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종교적 자유”라는 말을 “차별할 자유”로 여기는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견해에 관해 이야기하는 한편, 교회에서 말하는 종교적 자유란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장래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왜 그렇게도 중요한지에 관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또한, 종교적 자유에 관해 여러분 중 일부가 의심스러워하시거나 오해하실 만한 부분에 관해서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사회, 정치, 그리고 시민 문제에서 종교가 하는 역할이 이해되지 않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왜 종교 단체가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지 의아해하는가 하면, 정치에 관여한 종교인의 동기에 대해 종종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종교가 정치적인 논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단체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법률과 법령은 사회적 및 도덕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회의 모든 개인은 모두에게 공평한 법률과 법령을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민 담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만인을 위한 자유

종교적 자유란 무엇을 뜻합니까?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이 중 한 명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이든이라고 부를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바라던 분야에서 일을 시작한 이든은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자신의 업무가 아닌 일까지 맡아서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많은 동료가 그를 좋아했고 그는 자기 일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동료 두 명과 점심을 먹던 그는 편안한 마음에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습니다. 다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에 어색한 침묵만 흘렸습니다. 이든은 동료들의 냉담한 반응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거부당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날 점심 이후, 이든은 직장 생활이 점점 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약자가 되었고 자신의 가치도 예전만 못하게 평가받는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큰 프로젝트나 퇴근 후의 친목 모임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이 없어지고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자, 업무 효율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상사는 그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느끼고 그를 해고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든은 자신이 동성애자라서 해고당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사만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만다는 지역의 한 대학 행정실에서 막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고무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되어 신이 났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한 동료가 사만다에게 다가가 사만다가 몰몬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만다는 명랑하게 그렇다고 답했지만, 그다음 질문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몰몬은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거죠?” 사만다는 그 질문이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과 그분이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도덕적, 성적 행위에 관한 지침이 포함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동료는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믿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로 맞섰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역사에 보면 종교적 가르침을 이용해서 전쟁을 벌이고 약한 사람을 소외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사만다는 만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자신이 믿고 이해하는 바를 다시 말한 뒤, 동료에게 자신의 믿을 권리를 존중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동료는 이 대화를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음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점점 더 많은 동료가 사만다에게 질문과 공격을 퍼붓자 그녀는 갈수록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종교적인 대화가 늘어나는 것을 본 사만다의 상사는 업무 공간에서 포교를 하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사만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든처럼 사만다도 일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당할 것을 불안해하는 대신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가상이지만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만다나 이든과 같은 상황에 놓인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로 하든지, 또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으로서 공평하고 친절하게 대우받기를 바랍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든을 해고하거나,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사만다를 위협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당한 비판과 판단, 대우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볼 때, 이든의 입장에 서는 것은 올바른 일이지만 사만다의 입장에 서는 것은 그만큼 올바른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든의 경우는 옹호

종교적 자유의 중요성

“우리의 선택의지를 충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종교적 자유에 달려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사탄은 우리가 이 자유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도덕적 선택의지를 멸하려 했고, 이제는 지상에서 강하게 종교적 자유를 약화시키고 반대하며, 종교적 자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 자신의 구원에 필수적인가와 관련하여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선택의지를 보호하고 종교적 자유를 수호하십시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12쪽.



단체가 나서서 이 사례를 반동성에 차별 사례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사만다는 어떻습니까? 누가 종교적 양심에 대한 사만다의 권리를 지켜 주겠습니까?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면서도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살 권리를 갖겠다는,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삶을 살 그녀의 권리는 또 어떻습니까?

만인에게 공평을

우리 사회는 한 계층의 사람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여러분과 저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 희생자로 삼을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일부 종교 학교는 학생들과 교수진에게 정절과 순결을 요구하는 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큰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 또한 개인의 종교적인 견해가 더는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났거나 사임을 강요당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기업주가 양심 고백을 했다는 이유로 폐업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읽고 들으셨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끊임없이 선택과 양심의 자유를 옹호해 왔습니다. 오래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양심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 믿습니다.”¹

그는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몰몬’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저는 ... 장로교나 침례교나 그 외 다른 종파의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왜냐하면 후기 성도들의 권리를 짓밟는 바로 그 논리가 ... [후기 성도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스스로 방어하기에는 너무 약한 다른 종파의 권리도 짓밟을 수 있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양심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인종과
계급, 상황을 개의치
않으시고 간단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때문입니다.”²

그렇다면 종교적 자유에 관한 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늘의 영감을 받아 신중하게
숙고했음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함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강압하지 않으십니다.”³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갈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 집단의 권리가
다른 집단의 권리와 충돌할 때,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공평하고 세심하게 대해야
한다는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만민에게
공평할 것”⁴을 믿고 그렇게 하도록 가르칩니다.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한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보호하며, 그 사람이 그러한
믿음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견해가 대중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믿음은 허락되지도, 가치가 인정되지도,
허용되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국 전쟁이 일어난 것은
선택의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의
견해가 대중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심을 저버리도록 강제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의지를 심각하게 짓밟는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믿고 선택한 바에
흔들림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할
때, 저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면 결과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께서 용인하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는 선택에 대해 그분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 온전하게
되라는 계명은 현재 있는 곳에서 시작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도달하기 바라시는 곳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선택에 진실하고 흔들림 없이

생활하려면, 우리가 가진 빛과 지식, 이해를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역사상 과학 기술에 가장 강하게 “접속된” 세대입니다. 그들은 항상 접속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은 항상 100% 정확합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동성애자의 권리에 관한 교회의 입장에 대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믿지는 마십시오.

교회는 얼마 전인 2015년 1월, 십이사도 세 분과 본부 청년 회장단 한 분을 모시고 기자 회견을 여는 것으로 “만민에게 공평을”이라는 접근 방식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 회원들과 지역 사회, 그리고 유타 주 입법 의회에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옹호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옥스 장로님은 이 기자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방 정부와 주 정부 및 연방 정부를 향해 모든 사람을 위해 다음 사항을 힘써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개인과 가족, 교회와 여타 종교 그룹에 없어서는 안 될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주거, 취업, 그리고 호텔, 식당, 교통수단 등의 공공시설 분야에 대해 시민 중에서도 성적 소수자인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이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고 있습니다.”⁵

6주 후 성적 소수자와 종교인들 모두를 위한 보호법이 통과되자,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성적 소수자들을 축하했습니다. 더이상 성적 성향이나 성별을 이유로 퇴거, 주거 차별, 해직 등을 겪지 않고 이들이 보호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교파의 친구들이 직장과 공공장소에서 비슷하게 보호받는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도 축하를 전했습니다.

유타 주와 교회가 이렇게 역사적인 타협을 이루어 낸 일은 전국적으로 보도되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교리나 종교 원리도 희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도덕적 율법, 또는 성관계는 오직 결혼한 남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믿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모두에게 공평했고, 도덕적 표준 및 가르침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사이에서는 일관성이 지켜졌습니다.

공평의 메시지

우리 중 대다수가 행정과 입법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어떻게 이 주제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될지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공평의 메시지를 지지하고 권장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공평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모두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분께서 죄가 되는 행동을 용납하시거나 묵인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죄를 묵과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하고 도우며 구조하기 위해 사랑으로 손을 내민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사랑받겠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구주께서 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고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분의 순수한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신앙으로 간구하면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모로나이 7:48 참조)

이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면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때로 논쟁이 초래될 수 있는 정치 분야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정치를 주제로 토론할 때, 특히 종교적 자유가 그 주제가 될 때는 긴장이 고조되기 쉽습니다. 이런 순간에 자신을 다잡지 못하면 가족과 친구, 이웃, 지인들에게 기독교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말 것입니다.

구주께서 어려운 질문과 도전적인 견해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셨으나, 누구에게도 그분이 가르치신 방식대로 살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인종과 계급, 상황을 개의치 않으시고 간단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요한복음 4:5~30 참조), 로마인 백부장(마태복음 8:5~13; 누가복음 7:1~10 참조),

그리고 평판 나쁜 세리(누가복음 18:9~14 참조)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모범을 따르라고 명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며, 너희가 본 바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라.”(니파이후서 31:12) 사람들이 나와, 혹은 우리와 다른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들을 판단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기가 가장 어려울 때는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거나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친구나 가족들 사이에서 종교적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 균형을 잡아야 할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신앙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 편협하고 비협조적인 모습으로 비칠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주의 생애를 공부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구주께서는 진리로 알고 있는 것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사랑과 격려로 손을 내미는 법을 완벽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두시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앞으로 나와 먼저 그녀를 정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자, 죄가 없으신 우리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한복음 8:11)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여 주신 용서와 친절은, 성적인 관계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분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역시 옳은 것과 참된 것을 단호히 지키면서도 친절하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구들과 추종자들이 당신을 등지자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등을 돌린 이유는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불편해했던 탓이지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해하셨던 탓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려면 반드시 선택의지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존중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종교적 자유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도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어렵거나 불편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만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대화를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으며, 구주께서 우리가 당신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볼 때, 공평을

주장하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1922~2015) 장로님은 남녀 간의 결혼을 확고히 믿으면서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위대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법이 편파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실 때면 그들의 권리가 반드시 보호받게 하는 모범을 남기셨습니다.

조셉 스미스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교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어긋나고 상처 난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유산이 있었습니다. 교리는 우리가 정한 것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관해 여러분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세대의 연민과 존중, 그리고 공평에 관한 자연스러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을 헤쳐 나가려면 낙천적이고 확고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구주께 의지하는 한편, 믿음이 다른 사람도 공평하게 대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함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은

공평을 지지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1. 공평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2.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기
3.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볼 때, 공평을 주장하기





굴하지 않으며 협력할 줄 아는 세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문제의 복잡성을 다루는 대화에 참여하여 어떻게 하면 신앙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학교와 집에서, 그리고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나눌 때는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평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그 대가로 여러분도 똑같은 대우를 바라십시오.

커지는 사랑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공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권고를 따를 때, 여러분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모두를 위한 구주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를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모범을 보일 때 문이 열릴 것이며,

살아가는 내내 소중히 여길 돈독한 우정이 쌓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아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축복을 받고 행복할 수 있다는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랑과 배려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그분의 권능과 사랑을 훨씬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2015년 9월 15일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 "Religious Freedom and Fairness for All"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345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345쪽.
3. "인간이 선택의지로", 찬송가, 175장.
4. "Transcript of News Conference on Religious Freedom and Nondiscrimination", Jan. 27, 2015, mormonnewsroom.org.
5. Dallin H. Oaks, in "Transcript of News Conference on Religious Freedom and Nondiscrimination."

구주께서는 진리로 알고 있는 것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사랑과 격려로 손을 내미는 법을 완벽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삶을 선택하다: 자살 충동 극복

세상의 빛이

있었기에 나는

계절성 우울증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익명

오 이슬란드의 추운 도시로 이사한 직후, 나는 자살 충동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아이슬란드는 겨울이면 햇빛이 부족하여 심각한 계절성 정서 장애(SAD)가 일어나는 곳이었다.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어지자, 나는 자살을 생각했다.

첫해 동안, 나는 내가 우울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물론, 심지어 남편에게도 내 생각을 말하기가 두려웠다. 가족이나 교회 회원 그 누구도 내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뜨거운 간증이 있는 활동 회원이자 큰 시련 따위는 모르는 사람으로 여겼다. 나는 자주 기도를 드리며 고통이 줄기를 간구했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나는 식단에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자주 운동을 했으며, 경전에 몰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모든 계명을 지켰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우울증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더 빨리 달려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해 보았지만, 도무지 파도를 이길 도리가 없었다. 나는 해류를 거슬러 헤엄쳐 보려 안간힘을 쓰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라도, 혹은 점심때까지라도 내가 살아 있기를 기도했다. 어떤 날은 내 생각과 충동을 이기기 위해 엄청난 의지력을 발휘하며 순간순간을 겨우 버티기도 했다.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서 처음으로 거의 자살할 뻔했던 때가 기억난다. 미리 계획하거나 생각한 일은 아니었다. 나는 당시 일시적으로 논리적 사고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나중에야 내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했다. 나는 자살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혼잣말을 하며, 그런 생각은 한 적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나 자신을 설득했다.

그러나 자살 충동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불쑥불쑥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왔다. 극심한 통증을 끝내 버리고 싶은 유혹이 간절했다. 그러는 한편, 나는 치유받고 싶었다. 당시에는 내가 급성 질환(심각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내가 치유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부탁한 것이 신권 축복이었다.

내가 힘든 싸움을 겪고 있음을 모르고 있던 남편은 축복을 주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많은 말로 알려 주었다. 남편은 내가 어려움을 잘 이겨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즉각적인 치유가 답은 아니었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싸움을 이겨 내도록 도와주시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여름이 되자 햇살이 가득하고 낮이 길어졌다. 날이 전혀 어두워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한밤중에도 해가 지지 않았다. 나는 행복했고 다시 나를 찾은 것 같았다. 그러나 9월이 되어 낮이



급격히 짧아지자 우울증이 다시 찾아왔고 서서히 마음속에 자살 충동이 밀려왔다. 두려웠다. 처음에는 지난해에 했던 일들을 해 보았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운동하고, 매사에 더 열심히 임했다. 그러나 자살 충동은 더 강하고 심해졌다. 두 달간 몸부림을 치다가 마침내 혼자 힘으로는 이번 겨울을 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현대 의학과 의사들로 우리를 축복하셨음을 깨달았다. 회복하려면 우울증을 겪고 있음을 밝히고 의사를 찾아가야 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힘들었다. 남편에게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울음이 나와서 말도 제대로 못 할 지경이었다. 자살이라는 말은 입 밖에 낼 수조차 없었다. 남편은 나를 위해 정신과 의사와 약속을 잡아 주었다.

의사가 처방해 준 약 덕분에 나는 겨울을 날 수 있었다. 많은 사람처럼, 나도 적정 복용량을 찾고 부작용을 다루느라 애를 먹었다. 이 일로 남편과 가족들은 스트레스가 늘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나를 지지해 주었다.

봄이 되자 심각하던 우울증이 나아져서 더는 약물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일조량이 많은 도시로 이사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으며 나도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다. 그 전에 느꼈던 생각과 감정, 충동에 대해 죄책감이 생겼던 것이다. 십대 자녀들이 내가 자살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싫었다. 인생에서 일 년 이상을 낭비해 버린 느낌이었다.

게다가, 나는 무서웠다. 특히나 9월이 되어 다시 낮이 짧아지는 시기가 오니 두렵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같이 지난날들을 곱씹으며 다시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훌륭한 의사에게 인도되어 치료를 시작하면서 삶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사의 도움으로 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치료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간절히 기도하고 삶에 구주의 속죄를 적용하려 애쓰자, 주님은 내가 느끼던 죄책감을 신속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거두어 주셨다. 그분은 우울증은 내 잘못이 아니므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권능을 통해 나를 위해 그 짐을 짊어지신다. 나는 빛으로 가득 찼고 다시 희망을 느꼈다.

왜 내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시련을 경험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다는 알지 못한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지만, 몸과 마음의 고통은 모두 사라졌다. 나는 매일 가족과 주치의가 있음에, 그리고 내가 지상에서 이 시간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나는 그런 질병을 겪은 덕에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배우지 못했을 지식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와 함께하는 소중한 영적인 순간들을 경험했다. 내가 경험한 것들 덕분에 나는 인생을 껴안을 용기를 얻었다. ■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필멸의 삶 동안 마주할 그 어떤 육체적 고통, 영적 상처, 영혼의 고뇌나 심적 고통, 질환이나 연약함도 구주께서 경험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 그분은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다가와서 어루만지고, 돕고, 치유하고, 강화하실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힘에만 의지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쉽게 그들의 집을 지게 하시매”,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0쪽.

자살을 예방하는 안전 계획 세우는 법

더그 토마스
임상 사회 복지사

자 살하려는 생각이 들 때 1단계부터 시작하여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단계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 계획을 세워 보자. 계획을 세우기에 가장 좋은 때는 위기가 닥치기 전이다. 계획은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는 등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 계획을 작성하는 유용한 서식이 마련된 웹사이트와 앱을 사용해도 좋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아래 6단계 참조) 혼자서 아래의 제안을 활용해도 좋다.

1. 경고 신호를 인식한다.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생각, 기분, 행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의 말로 그것들을 기록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모든 활동을 취소하고 오직 잠만 자고 싶다.” “내가 부담될 것 같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장 무엇이든지 해야 할 것처럼 불안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신호를 알아차리면 계획을 실행할 때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차분하게 자신을 위로하려고 노력한다.

자살하려는 생각이나 충동이 들 때 시도할 만한, 위로와 휴식이 되는 활동들의 목록을 만든다. 그 예로는 산책하기,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운동하기, 기도하기, 일기 쓰기 등이 있다.

3. 살아야 할 이유를 생각한다.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힘들 때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일들, 감사한 축복들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든다.

4.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한다.

위기에 처했을 때 알릴 수 있고, 여러분이 안전 계획의 나머지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줄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목록을 만든다. 이러한 사람들에는 친구들, 와드 회원들, 가족들이 있다.

5. 반드시 안전한 환경에 머무른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자살에 사용할 만한 물건을 치워 두거나 기분이 전환될 때까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등이 여기 해당한다. 안전하면서도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릴 수 있는 사교적인 환경, 곧 공원이나 체육관, 영화관 등의 목록을 만든다.

6. 아직도 자살하고 싶다는 느낌이 든다면 전문가에게 연락한다.

병원, 응급실, 자살 예방 핫라인 등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를 목록으로 작성한다.

Suicide.org/international-suicide-hotlines.html에 들어가면 수십 개국의 핫라인 목록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번호는 1-800-273-TALK이다.

7. 이 단계들을 모두 거친 후에도 여전히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응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편집자 주: 다음 달 잡지에서는 자살 충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될 기사가 실릴 것이다. Topics.ids.org의 “자살” 항목에도 도움이 되는 링크와 이야기,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은 우리가 사랑과 단합으로 서로를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와드 및 지부 평의회를 지정하셨습니다.

제이콥 알 존스

일 마 전에 저는 제가 무척 사랑하는 한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 밤에
참석했습니다. 젊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어린 딸로 구성된 가족이었습니다.
감독인 저는 그곳에 참석하라는 영의 이끌림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
젊은 아빠를 염려하는 그의 어머니와 누이의 부탁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들 모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가정에 큰 변화를 일으켜 복음과 교회의 축복을 다시
가져다주고자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젊은 아빠는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로 여러 달 동안 깊은 걱정과 빠져 있었습니다.
직장이 머지않아 문을 닫을 예정이라 가족이 다른 주로 이사해야 할지 아내와 함께
고심 중이었는데, 이는 가족에게 커다란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날 이곳에 모이기
조금 전에 이 아빠는 크게 기대했던 어떤 재정 지원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달갑지 않은 그 소식이 이
젊은 아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분위기와 걱정을
환기하고자 그의 아내는 공과를 위해 경진 한 장을
골랐고, 남편은 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사가
5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





“두세 사람이 …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보라, 거기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교리와 성약 6:32)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6:32)

구주의 그 말씀은 단지 좋은 충고나 위안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주의 그 말씀은 젊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교리와 아울러 하나님의 왕국에서 계시와 인도를 받는 방식과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세우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날 밤 그 가족 평의회 안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 그분의 영을 초대했습니다. 목적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차 있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서로 나누었고, 이를 주님 앞에 가져가 그분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단합하여 결정을 내린 다음, 행동에 옮겼습니다.

교회는 평의회를 통해 관리된다

교회 지침서에서는 평의회 교리를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본부, 지역, 스테이크, 와드 차원에서 열리는 평의회를 통해 관리된다. 이 평의회는 교회 질서의 근본이 된다.

지도자는 각 조직 차원에서 신권 지도력의 열쇠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유익을 위해 함께 협의한다.”¹

이 교회의 모든 차원에서, 우리는 구주께서 제자들과 올리버 및 조셉 스미스에게 가르치셨던 것과 같은 원리, 즉 단합과 평의회를 통해 함께 나아오라는 원리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려 힘씁니다.

각 와드에는 “감독단과 와드 서기, 와드 집행 서기, 대체사 그룹 지도자, 장로 정원회 회장, 와드 선교 책임자, 상호부조회 회장, 청남 회장, 청년 회장, 초등학교 회장, 주일학교 회장이 포함된” 와드 평의회가 있습니다.²

이 와드 지도자 그룹이 행하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개개인이 간증을 쌓고, 구원 의식을 받으며, 성약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³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권고와 협의에 안전이 있다.”⁴ 왜 그럴까요? 우리 중 누구도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것보다 똑똑하지 못하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독특한 시각과 일련의 경험 및 식견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 지침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와드 평의회

사라. …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나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1, 8절)

그런 후 그 가족은 이 성구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토론했습니다. 이 가정의 밤은 가족 평의회로 발전했고,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 작은 아파트에 가득 찼습니다. 이 젊은 아빠는 자기의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소망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염려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기탄없는 토론이었습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 지켜보기만 하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침내 부부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도움과 용기를 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계시의 방식

저는 어려움을 겪던 그 겸손한 가족과 그날 저녁 그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했던 때보다 주님의 영을 더 강하게 인식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주님이 오래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됐던 시간이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한 가지 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보라, 거기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이른 것같이-그와

모임에서 평의회의 각 구성원이 지닌 고유한 시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임 동안 감독은 검토 중인 각 사안을 설명하되, 보통 토론 내용을 듣기 전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결정하지 않는다. 감독은 토론을 주도하려 하지 말고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도록 권장한다. 질문을 하고 특정 평의회 구성원에게 제언을 하도록 부탁한다. 감독은 결정하기 전에 주의 깊게 경청한다. 이러한 토론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⁵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고유한 재능과 능력 및 시각을 평의회에 가져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알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과 개개인에 대해 토의하고 단합의 영 안에서 결정을 내리려 힘씁니다. 그런 다음,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나가고 주님께 와드 회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와드 평의회에서 함께 상의하기

제가 그 젊은 가족과 함께한 가정의 밤에 참석하기 8개월 전, 어느 일요일 아침에 와드 평의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모임을 시작한 뒤, 개인과 가족이 복음이 주는 축복과 의식을 받도록 돕는 일에 관한 비디오를 시청했습니다. 저는 평의회 구성원들에게 비디오를 보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이 가족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한 후, 어떤 부름을 줄 수 있는지, 이 아빠가 멜기세덱 신권 성임을 위해 노력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부가 성전 의식을 받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감독인 저는 몇 가지 임무를 지명했습니다. 그렇게 토론은 거의 끝난 듯이 보였으나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 사람은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을 너무 서두른다고 생각해요. 가정의 밤이나 경전 공부와 기도와 같은 기본적인 것에 그 가족과 함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자 그 “석연치 않은”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청년 조직을 대표해 말한 것이 아니라 이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말했으며, 그 순간 영은 그녀의 권고가 참됨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 자매님의 발언은 토론에 다시 불을 지폈고, 우리는 이 가족이 경전 공부, 기도, 가정의 밤 등을 그들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젊은 아빠의 누이가 우리 와드 선교사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었기에, 와드 선교 책임자는 그 누이와 가정 복음 교사들과 함께 그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가정의 밤을 열도록 돕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가정의 밤 자료집과 찬송가를 그 가정에 전했습니다.

가장 지속적인 지원과 힘은 이 젊은 아빠의 어머니와 누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 가족의 가정의 밤에 끊임없이 참석했기 때문이죠. 마침내 이런 노력은 영광스럽게도 제가 참석했던 그 특별한 가족과의 밤으로 이어졌습니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이니라.]”(모사이야서 2:17)

지침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자기 의견이 정식 참여자의 의견으로서 존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 때로는 여성의 관점은 남성의 관점과 달라서 그 관점이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이해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중요한 시각을 제시하기도 한다.”⁶ 젊은 감독이었던 저는 지혜와 인생 경험 및 식견이 저보다 훨씬 풍부한 초등학교 회장, 청년 회장, 상호부조회 회장과 함께 평의회에 앉았습니다. 이분들은 종종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면에서, 또 심지어 훌륭한 아버지이자 신권 소유자가 되는 방법 면에서 다분히 제 교사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여성들께 고마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평의회 모임에서 의견이 묵살되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워드 평의회 구성원은 동등하게 봉사합니다. 감독에게 주어진 회장단의 열쇠는 질서, 조직, 부여된 책무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열쇠이지 어떤 지배력이나 영적 우월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단합

지침서에는 단합의 중요성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논의를 한 다음에 감독이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혹은 보좌와 그 문제를 더 논의하기 위해 기다릴 수도 있다. 감독이 결정하면 평의회 구성원은 단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그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

평의회 구성원이 중요한 결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경우, 감독은 그 문제를 더 생각해 보고 영의 확인과 단합을 구하기 위해 다음 평의회 모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⁷

평의회에 안전이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단합입니다. 때때로 개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안다고 생각하고는 곧바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최종 목표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발전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망각하곤 합니다. 그분의 목표는 그분의 모든 자녀가 그분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

…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 함이로소이다.”(요한복음 17:3, 9, 11, 23)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어 그분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며, 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과정은 결과만큼 중요합니다. 평의회는 신성하게 지정된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를 통해 단합이 성취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38:27)

이 계명은 시험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님은 위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역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고 또 나와 하나가 될 때, 이로써 너희는 너희가 나의 것인 줄을 알리라.”





한 가정의 아버지는 가족의 이주가 축복과 단합을 가져오리라는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아내와 자녀와의 단합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계획은 기대하는 결과를 낳기 힘들 것입니다.

감독은 와드 선교 사업에 관한 계시를 받을 수 있으나, 와드 평의회가 그 계시와 더불어 단합되지 않으면 축복이 오지 않을 것이며, 감독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기,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평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열다섯 명의 거룩한 사도직 부름은 교회 회원인 우리에게 중대한 보호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이 열다섯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 만장일치에 이르게 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열다섯 명은 교육이나 직업적 배경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도 서로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이 열다섯 명은 만장일치에 도달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⁸

저는 주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두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주님이 그분의 자녀 중 하나를 구조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가고자 하시는지, 또는 얼마나 멀리 그분의 종을 보내시는지에 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보살피는 책임이 주어진 평의회가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산다.

가족 평의회에 대해 더 배우려면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의 2016년 연차 대회 말씀, “가족 평의회”를 참고한다.

주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4.1.
2. 지침서 제2권, 4.4.
3. 지침서 제2권, 4.4.
4. Henry B. Eyring, “Listen Together”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Sept. 4, 1988), 2 참조, speeches.byu.edu.
5. 지침서 제2권, 4.6.1.
6. 지침서 제2권, 4.6.1.
7. 지침서 제2권, 4.6.1.
8. 러셀 엠 넬슨 장로, “선지자를 지지하며”, 리야호나, 2014년 11월호, 75쪽.

여러분이 와드 평의회에서 봉사하고 있지 않다면

- 방문 교사 또는 가정 복음 교사로서 방문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들을 보살핀다. 여러분이 맡은 가정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지도자에게 보고할 때, 보고하는 그 내용이 와드 평의회에 전달되고, 평의회 구성원이 영의 인도를 받아 그 가정의 필요 사항을 다루게 되기를 기도한다.
-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기적으로 와드 평의회에 참석하고 있을 수도 있다. 배우자가 모임에 가고 없을 때, 특히 혼자서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 준비시켜야 할 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배우자가 영의 인도를 받아 봉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중 몇몇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며, 이로써 여러분의 가족이 축복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 부름을 받거나 성찬식에서 말씀하도록 지명을 받을 때, 그 봉사의 기회가 평의회와 주님의 종을 통해 주님에게서 온 것임을 기억할 수 있다.

안정기를 넘어서 힘써 앞으로!

하 이킹, 자전거 타기, 스키 같은 야외 활동은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에, 불현듯 우리가 지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내가 야외에서 몸을 단련하느라 들이는 시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일정 기간 혹은 한 계절 동안 한 가지 운동을 정해 놓고 집중해서 체력과 기술을 쌓는 편이다. 그러다 내가 원하거나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혹은 다른 사람의 권유를 받아 운동을 바꾼다. 그러나 종류를 바꾸고 나면 아무리 나에게 잘 맞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운동이라도, 처음에는 숨이 차고, 생각만큼 잘하지 못하며, “있는지도 몰랐던” 새로운 근육들을 쓰게 된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운동이 자리가 잡히고 필요한 지구력과 기술이 다시 쌓이곤 한다.

이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몇몇 습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습관에 편안해진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원하거나,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혹은 다른 사람의 권유를 통해, 편안하고 수월한 안정기가 성장을 위한 도전과 기회의 시기로 바뀌는 시기가 온다.

인생의 도전과 씨름하는 일은 힘겨운 과제가 될 수 있다. 니파이는 다음과

그 러나 종류를 바꾸고 나면 아무리 나에게 잘 맞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운동이라도, 처음에는 숨이 차고, 생각만큼 잘하지 못하며, “있는지도 몰랐던” 새로운 근육들을 쓰게 된다.

같은 말로 우리를 격려한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31:20)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 이야기만 들으며 영원히 전세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발전하기 위해 직접 필멸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지상이라는 “교실”이 필요했다.

수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진실성과 그 필요성을 간증하면서, 새로운 기회와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이 가르침을 내 영혼 깊이 새겨 주었다. 우리는 같은 주제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 공부하며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복음 진리를 익히게 되는 것 같다. 가끔 나는 자문한다. “지금부터 얼마나 더 배워야 할까?” 운동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근육을 더 단련해야 할까?”

그러나 삶의 계절이 바뀌고 또 다른 도전과 직면할 때,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경험을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더욱 그분처럼 되고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 크리스토퍼 드레이크,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이번에는 행동으로 옮겼다

나는 낡은 카시트에 딸을 앉힌 뒤 안전띠를 채웠다. 돈이 부족했기에, 얼마 전 이 중고 카시트를 얻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딸아이가 자라면서 전에 쓰던 카시트가 맞지 않게 되었기에, 이 중고 카시트는 딸의 어린이용 보조 의자로 안성맞춤이었다. 참 아름다운 날이었고, 그날 해야 할 일들이 웬지 기대되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도서관에 들렀다. 딸의 안전띠를 풀고 있었을 때, 우리 옆에 주차해 놓은 차 안에 어느 젊은 라틴계 여성이 있는 게 보였다. 그 차 안에는 혼자서는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해 보이는 아기가 카시트도 없이 뒷좌석에 앉아서 작은 공을 잡으려 몸을 굽히고 있었다. 그 젊은 엄마는 아기의 작은 체구에 맞추어 안전띠를 단단히 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때 두 가지 생각이 스쳤다.

“아기가 쓸 카시트가 없네. 내 카시트를 쥐도 되지 않을까?”

그런 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엄마가 영어를 못하면 어떡하지? 괜히 기분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닐까? 내 카시트는 심하게 낡았잖아. 이런 걸 원하지 않을지도 몰라. 만약 원한다면, 나는 또 어디서 새 카시트를 구하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엄마는 운전석에 올라타고는 차를 몰고 떠났다.

도서관 문으로 다가가는데, 큰 죄책감이 밀려왔다.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문을 열려고 하자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도서관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일들을 처리했는데, 방금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마지막 용무를 처리한 뒤, 나는 다시 도서관에 가기로 했다. 도서관에 도착해서 나는 아까 주차했던 같은 곳에 주차했다. 놀랍게도, 그 엄마와 아들이 탄 차가 다시 내 옆에 주차하는 걸 보았다. 나는 강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번에는 주저 없이 행동으로 옮겼다. 나는 내 아이의 카시트 고정장치를 풀어서 그 젊은 엄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영어를 할 줄 몰랐다. 몸짓으로 나는 그녀의 아기와 카시트와 차를 가리켰다. 우리는 함께 카시트를 차 안에 고정했다. 카시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 주고 있을 때, 그 엄마가 뭐라고 말을 했다. 내가 아는

스페인어라고는 단어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은 “gracias [감사합니다]” 였다.

내가 어려움에 처한 자매를 도울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커다란 감사를 느꼈다.

나는 할 일 목록에 한 가지를 추가했다. 근처 중고품 매장에 가는 것이었다. 딸에게 안전띠를 매어 준 뒤, 매장으로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그 상점 안 뒤쪽 구석 바닥에는 카시트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내가 방금 준 것과 똑같은 것이었고 낡은 것마저 비슷했다. 나는 그날 아침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경의심과 겸손함을 느끼며 그것을 구매했다.

구주의 부드러우면서도 효과적인 가르침을 통해, 나는 처음으로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라는 가르침을 명확히 배웠다. ■

테레사 위버, 미국, 텍사스 주

이번에는 주저 없이 행동으로 옮겼다. 몸짓으로 나는 그녀의 아기와 카시트와 차를 가리켰다. 우리는 함께 카시트를 차 안에 고정했다. ■



생각하지 못했던 구도자

늘 룡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게 축복이었다. 어머니는 교회 회원이셨고, 아버지는 회원은 아니셨지만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도록 지지해 주셨다. 나는 자라면서 아버지가 교회에 들어오시기를 매일같이 기도했다.

열여섯 살이 되어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 보니, 그 축복문에는 아버지가 교회의 회원이 되시도록 내가 영향을 미치리라는 약속이 있었다. 나는 세미나리에서 배운 것들에 관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침례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록된 경전 구절에 관해 말씀드렸다.(요한복음 3:5 참조)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가능성을 열어 줄 성전 축복에 관해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다.

당시 나는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작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교회 회원은 나뿐이었지만, 나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당시 선지자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너 와 친구들이 안에서 모임을 하는 동안 바깥에서 집에 페인트칠을 하면서, 이제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일은 그만해야겠다는 확신이 들더구나.

회장님이셨다. 우리는 자주 “모든 회원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그분의 권고를 들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2011], 제6과 참조) 어느 여름, 동생 메릴린과 나는 친구들에게 선교사와 토론을 해 보도록 권유했다. 친구들은 두 차례 토론을 한 후 더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실망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우정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나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리고 봄 학기 중에 아버지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내가 누린 가장 큰 특권은 훌륭한 딸들을 둔 가장이 된 것이란다. 복음에 대한 너의 강한 간증을 보며, 또 지난 여름 젊은 친구들이 모여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정말로

교회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너와 친구들이 안에서 모임을 하는 동안 바깥에서 집에 페인트칠을 하면서, 이제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일은 그만해야겠다는 확신이 들더구나. 나는 몇 번이고 네 엄마를 주신 것에, 그리고 네 엄마가 교회에서 성장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길러 준 것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단다.”

아버지는 곧 침례를 받으셨고, 일 년 후 우리 가족은 애리조나 메사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었다.

친구들은 아무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교회에 들어오셨다. 선지자의 권고에 따를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질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

다이앤 미첼 콜, 미국 애리조나 주



에티오피아 자매님을 찾아서

전 임 선교사로 나갈 날을 몇 주 앞두고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오랜 친구를 찾아간 일이 있었다. 잠깐만 머물 생각이었는데 폭풍우가 심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그 집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와 친구 어머니와 앉아서 교회와 곧 다가올 선교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리우데자네이루, 벨루오리존치, 브라질리아 같은 도시에서 봉사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친구의 어머니는 리우데자네이루 근처 도시에 사는 당신 언니의 주소를 나에게 주시기로 했다. 친구 어머니는 만약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꼭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야 한다고 하셨다.

1982년 7월 7일, 나는 선교 사업을

나섰다. 그리고 친구의 이모 댁과 가까운 곳을 비롯해 여러 도시에서 봉사했다. 그분을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곳은 내가 봉사하던 지역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는 내가 직접 그분을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에게는 그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당시 선교사들은 18개월 동안 봉사했다. 친구의 이모와 그 가족을 만나 보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가 버렸다.

몇 년 후, 와드의 우정 모임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그 비회원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친구는 최근에 교회에서 침례받은 친척인 에티오피아 이모의 초대를 받고 왔다고 했다. 나는 에티오피아 이모란 분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우리 와드로 막 이사를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금세 에티오피아 이모가 좋아졌고, 우리는 리우데자네이루에 대한 추억에 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당황스럽게도, 에티오피아 이모가 바로 내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방문하고 싶어 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남편이 예기치 않게 돌아가신 후 얼마 전 침례를 받으신 터였다.

다행히도 그분은 다른 선교사들의 방문을 막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나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놓쳐 버린 시간만은 몹시도 아쉬워하셨다.

귀환 선교사만 이런 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친구를 교회 활동에 초대하는 것이든 선교사에게 소개하는 것이든,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두 그런 후회를 맛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 나아가 영감을 구하자. 그분은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과 사랑으로 선교 사업을 하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이다. ■

엘손 카를로스 페헤이라 파라나, 브라질



중립 지대란 없다

미디어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

에이시아 탄

눈 부신 기술로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보거나, 읽거나, 듣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미디어의 포화 속에 살고 있다. 우리 사회는 미디어와 오락물로 넘쳐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사상, 행동에 주는 영향은 미묘하면서도 강력하다. 우리가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형성한다. 우리가 품는 생각은 결국 우리 자신의 됴됨이를 결정한다. 나는 대학원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을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얻은 너무도 확실한 결론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미디어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기술 자체는 본질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기술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가 선과 악의 궁극적인 지표가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미디어의 힘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미디어에 의해 우리가 쉽고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인식한다.

(2) 건설적인 미디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선택한다.

미디어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가?

미디어를 이용하고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도록 고안된 미디어를 탐닉하고 나면 영화가 끝나거나, 책을 덮거나, 노래가 끝난 뒤에도 그 영향력이 무의식 속에 남기 마련이다. 미디어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미디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은 미디어의 영향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경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배에 틈새가 있으면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관계없이 물은 계속 새어 들어오듯이, 미디어 역시 우리가 그 영향력을 논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가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오락물에 의지할 때 그것들은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화든 책이든, 텔레비전이든 잡지나 음악이든, 우리는 종종 매일의 걱정거리와 문제에 대해 일시적인 위안을

찾기 위해 오락거리로 눈을 돌린다. 그러나 긴장을 풀기 위해 오락물을 이용할 때라도 표준에 대해서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바로 그 순간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허용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즐기겠다는 명목으로 미디어가 제시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든 이를 고민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거기에 제시된 관점이 자신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한다. 영화 평론가들은 영화 속에서 이 개념이 활용되는 방식을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은 미디어를 완전히 피하거나 단순히 부정적인 미디어를 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양하는 건전한 미디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설명했다.

“낮설고 비현실적인 배경, 이질적인 시간 개념, 현실과 동떨어진 인물 등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현실로 믿게 하려면 이를 영화 초반에 확실하게 설정하여 관객들이 영화의 전반적인

느낌과 분위기, 환경에 몰입하게 해야 한다. 영화 제작자가 이렇게 영화 속의 외적 설정을 창조해 내는 데 능수능란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불신을 던져 버리고 의심과 합리적인 판단을 뒤로한 채 영화 속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²

그렇게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버릴 때, 우리는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가치와 기대치, 그리고 신조에 더욱 마음을 여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미디어가 우리 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미묘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 미묘한 영향력

속에서 복음 원리와 양립하지 않는 관점을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데 그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오락성을 가진 미디어들의 기능에 주의를 환기하셨다.

“여러분은 ‘오락 [amusement]’이라는 말의 라틴어 상의 근본 의미가 ‘기만하고 속이기 위해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³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원한다. 우리는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잊기 위해

미디어를 찾고, 미디어에 의지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제시되는 것이 무엇이든 이를 믿도록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다. 그 미디어의 내용을 더 믿고 거기에 더 몰입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즐기게 된다. 그 내용이 진실이든 또는 거짓이든

말이다.

사회 심리학자 카렌 이 딜은 말한다. “우리가 허구 세계에 몰입하게 될 때, 우리의 태도와 믿음은 그 가상의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신념과 주장에 부합되도록 바뀌게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불신과 의심을 내려놓게 되고, 부지불식간에 마음을 열어 허구 세계에서 묘사되는 신념 체계를 받아들이며 그런 믿음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화면을 통해 보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변화나 반응을 불러온다. 미디어 속 상상의 세계는 이렇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형성해 나간다.”⁴

미디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며 우리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것들로 대체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1906~2004)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각이 행동을 낳는 것처럼, 외설물을 보면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끌릴 수 있습니다.”⁵

삶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자신이 미디어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을 고양하는 건전한 미디어를 선택해야 한다. 미디어는 생각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베냐민 왕의 다음 권고는 오늘날에도 해당된다. “너희 자신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실을 살피라.”(모사이야서 4:30)

우리는 어떻게 건설적인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가?

미디어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면 미디어에 관해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선택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영적인 감수성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선한 영향력이 크게 달라진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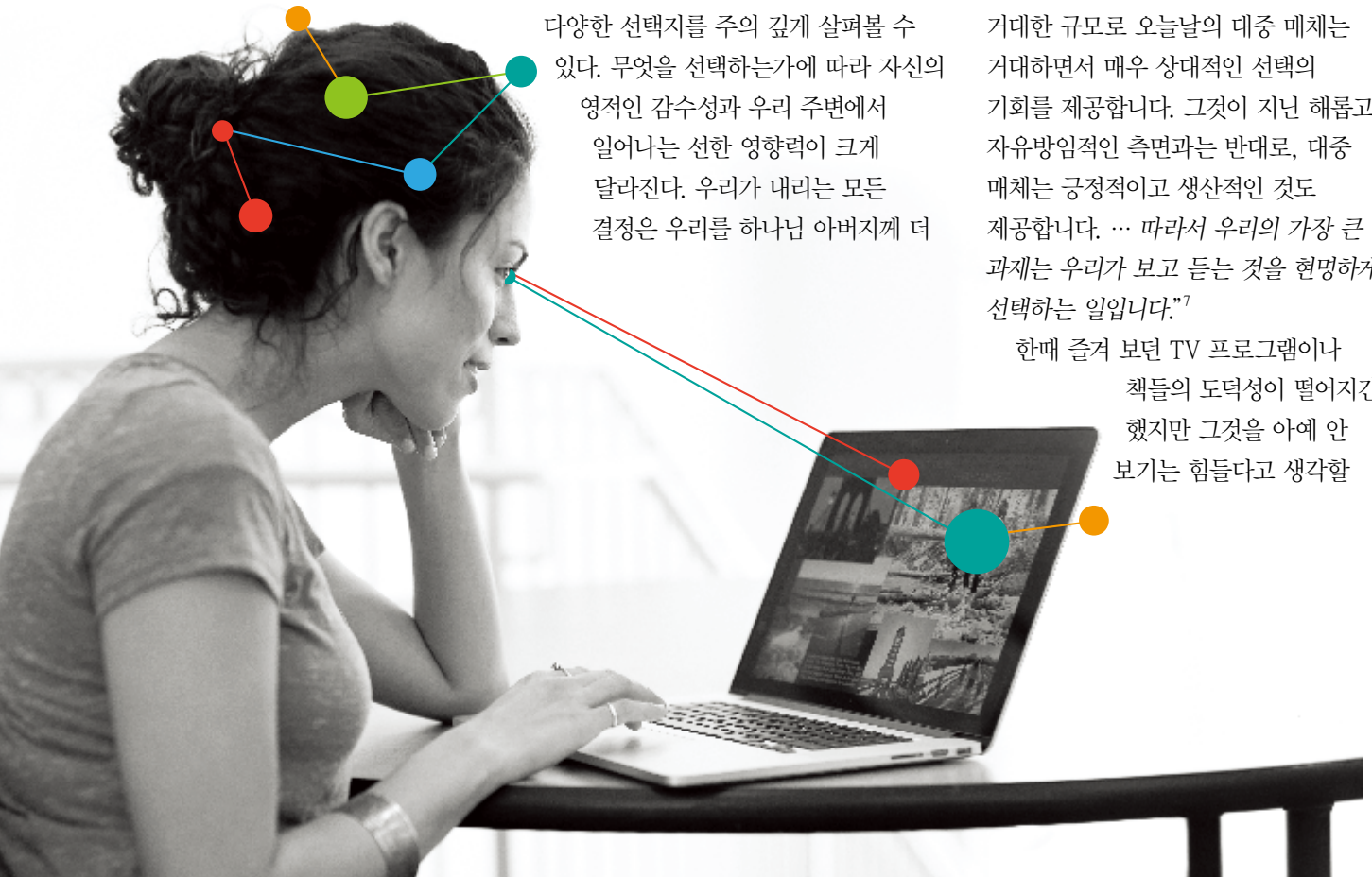
가까이 가게 할 수도 있고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기독교 작가 시 에스 루이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여가를 보내는 방법은 물론 즐기는 놀이조차도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된다. 이 우주에 중립 지대란 없다. 아무리 작은 공간과 아무리 짧은 순간도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이 주인이기 때문이다.”⁶

우리가 할 일은 미디어를 완전히 피하거나 단순히 부정적인 미디어를 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양하는 건전한 미디어를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방대한 미디어 가운데는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고 존중하는 훌륭하고 건전한 것들도 많다. 희망과 행복, 사랑과 친절, 기쁨과 용서의 메시지가 담긴 책과 영화, 노래는 수없이 많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거대한 규모로 오늘날의 대중 매체는 거대하면서 매우 상대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지닌 해롭고 자유방임적인 측면과는 반대로, 대중 매체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도 제공합니다. … 따라서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일입니다.”⁷

한때 즐겨 보던 TV 프로그램이나 책들의 도덕성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것을 아예 안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새로 개봉한 영화가 크게 흥행하여 보러 가고 싶을 때는 그 영화를 보아도 큰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표준을 낮추면 점점 쉽게 굴복하게 되고, 결국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주어 방종과 탐닉에 빠지게 된다. 그런 뒤에 우리의 표준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일은 매우 힘들다. 하지만 삶에 건전한 미디어들만 허락하겠다는 표준을 세우면 우리는 영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

우리는 1725년 수재너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인 아들 존에게 들려준 다음과 같은 시대 초월적인 조언을 따를 수 있다. “쾌락[, 즉 악한 행위의 순수성이 정당인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기억하거라.] 무엇이든 네 이성을 약화하는 것, 네 양심을 둔감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네 감성을 흐뜨리는 것, 영적인 것들을 누리는 기쁨을 앗아가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든 네 육신의 힘과 권세를 키워 몸이 정신을 지배하도록 부추기는 것들은 그 자체가 아무리 순수하다 하더라도 죄가 된다.”⁸

선택할 수 있는 힘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리를 고양해 주는 미디어를 선택함으로써 영을 불러들이고 자신을 강화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스스로 행할 힘이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친다.(니파이후서 2:26 참조)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신앙개조 제13조)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를 더 의로운 행동으로 이끄는 생각과 태도를 가슴과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축복을 얻을 것이다.(힐라맨서 5:12 참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미디어 기술의 눈부신 발전상을 누리는 데는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책임이 따른다. 나는 연구와 경험을 통해 미디어의 영향력을 보았다. 우리가 그 영향력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이다. 도덕적으로 저급한 것을 볼 것인가, 자신을 고양하는 건전한 것을 볼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이다.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는 청년 성인의 힘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오락과 대중 매체” 부분에서 미디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지침을 찾아볼 수 있다.

글쓰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주

1. David A. Bednar, “To Sweep the Earth as with a Flood”(Brigham Young University Education Week devotional, Aug. 19, 2014), speeches.byu.edu.
2. Joe Boggs and Dennis Petrie, *The Art of Watching Films*(2004), 43; 강조체 추가.
3. 제프리 알 홀런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8쪽.
4. Karen Dill, *How Fantasy Becomes Reality: Seeing Through Media Influence*(2009), 224.
5. 데이비드 비 헤이트, “개인의 도덕성”, *성도의 벗*, 1985년 1월호, 73쪽.
6. C. S. Lewis, *Christian Reflections*, ed. Walter Hooper (1967), 33.
7. 엠 러셀 벨라드, “우리의 음성이 들리도록 합시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6쪽. 강조체 추가.
8. Susanna Wesley: *The Complete Writings*(1997), 109.

호주에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다

벤 로빈슨

보 보산 너머로 동이 틀 무렵, 캐런 브룩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바로 집을 짓는 일이다. 2x4 인치의 목재를 하나 더 맞춰 놓으며 미소를 짓던 캐런은 일이 잘되었다는 성취감을 느낀다.

캐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그가 청력을 잃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청력 손실이 캐런의 발목을 잡았던 것도 아니었다. 캐런은 자신이 이 일을 하려고 태어났다고 여긴다. 정말 그럴지도 모를 것이, 캐런의 가족은 5대째 건축일에 종사하고 있다.

“저는 열다섯 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수습공이 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흔히 좋아하는 분야에서 수습 직을 찾으려면 학교를 그만두고 그 일에 매진하곤 합니다.” 캐런의 말이다. 그 후로 캐런은 줄곧 건축일에 몸담고 있다. 캐런은 집을 짓건 간증을 키우건, 혹은 부름을 영화롭게 하건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있다.

청력을 잃었다고 해서 집 짓는 일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캐런은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겠다는 소망도 놓지

않았다.

캐런은 말한다. “어렸을 때는 연단에서 하는 말씀을 10%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캐런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었지만, 청력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캐런은 기도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 그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캐런의 청력이 더 나빠진 것이었다.

“열여덟 살이 되었을 때, 육 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성신의 느낌을 찾아 교회로 갔습니다. 들을 수가 없었기에 제가 교회에서 얻을 것은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캐런은 말한다.

그러는 동안 캐런은 간증을 쌓았고 영에 의지했다. 흥미롭게도, 처음에는 더 큰 시련으로만 보였던 것이 그가 했던 기도의 응답이었음이 드러났다. 갑작스레 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캐런은 달팽이관을 이식받을 조건을 갖추게 되었고, 그 덕에 청력이 개선되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자격이 된 것이었다. 얼마 후 캐런은 호주 퍼스로 가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이제 빅토리아 모이에 있는 집으로

이 청년 성인은
좌절을 겪고
청력을 잃는 중에도
호주에서 주님의
사업을 서두르는 일에
힘을 보탤다.

돌아온 캐런은 와드 청남 회장단에서 봉사하며, 열 명의 청남들이 복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생활하도록 돕고 있다. 그 지역은 그렇게 활동적으로 남기가 특히 힘든 곳인데도 말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캐런은 참된 개종을 이루려면 영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캐런은 말한다. “저희는 청남들이 몰몬경을 읽고 교회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자신만의 개종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려고 합니다.”

5대째 가업을 이어가는 이 건축가는 집을 짓고, 복음에 대해 간증하고, 와드의 청남들을 인도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캘러에 대하여

호주에서는 청년 독신 성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나요?

호주에서는 매해 청년 독신 성인들이 함께 모이는 큰 대회가 열립니다. 호주의 청년 성인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기에, 이 대회는 모든 청년 성인들이 함께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려면 수천 킬로미터를 오가야 하므로 회원들에게는 큰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무엇을 하나요?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특히 농구를 좋아하죠. 호주에는 회원들이 주최하여 격년으로 열리는 부활절 농구 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여성팀 경기, 3점 슛 대결, 덩크슛 대결도 함께 진행됩니다.

호주의 교회

회원 143,891명
 와드와 지부 303개
 가족 역사 센터 145개
 선교부 6개
 성전 5곳

호주에 관한 사항

수도: 캔버라
 공용어: 영어

통계

인구 2천3백만 명
 국립 공원 500개
 1번 고속도로: 14,500km에 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국립 고속도로, 국토를 일주할 수 있음.





레베카에게 가 보아라

민디 레이 프리드먼

일 리노이 주 시카고 남 선교부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아직 첫 번째 지역에 있을 때였다.

자매 선교사들이 봉사하던 우리 바로 옆 지역이 최근에 폐쇄되는 바람에 나와 동반자는 스페인어를 쓰는 그 지역의 구도자들을 모두 가르치게 되었다. 그중에는 레베카라는 여성도 있었다.

처음 레베카를 만나던 날, 나는 그녀의 신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레베카는 건물 지하에 살고 있었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하려면 창문을 두드려야 했다. 이전 선교사들이 레베카를 가르치기 시작한 계기는 그녀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이라는 영화를 요청한 후부터였다. 그녀가 영화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선교사들은 결코 그녀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레베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힘들게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한때 아주 행복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아들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다. 그녀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를 가르치면서 그녀가 영을 느끼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방문하면서 레베카는 한결 행복해졌다. 그녀가 너무 멀리 사는 탓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녀를 자주 방문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지역 모임이 있던 어느 금요일이었다. 모임 장소가 우리가 있는 곳과 레베카의 집 중간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임이 끝나면 레베카가 사는 곳 근처로 갈 계획을 세웠다. 레베카에게 집에 있을지 물어보았지만, 레베카는 일하느라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우리는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구도자들을 방문해 보기로

했다.

결국 그곳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낸 뒤, 시간이 좀 남는 상황이 되었다. 무엇을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동반자가 말했다. “레베카가 집에 있는지 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레베카가 집에 없을 것이라고 했던 터라 나는 동반자의 제안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때, “레베카에게 가 보아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말 그대로, 마치 레베카의 집이 있는 쪽으로 몸이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이토록 강한 느낌은 처음이었다.

나는 동반자에게 차를 돌려 레베카의 집으로 가자고 했고, 우리는 그곳에 도착했다. 창문을 두 번이나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분명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기에 나는 펍 실망스러웠다. 나는 한 번 더 두드려 보자고 했다. 기다리다 막 떠나려는 참에 레베카가 나왔다.

그녀가 집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직장에서 해고되었기 때문이었다. 대화할 사람이 절실했던 그녀는 우리가 와 주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자신의 천사라고 말해 주었다. 우리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더 가르치는 가운데 그녀의 기분을 풀어 줄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돌보신다는 것과 레베카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다. 그리고 우리가 레베카에게 가 보라는 영의 속삭임을 따르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었음이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낱알이 아시며,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신앙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실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중
한 명을 돕기 위해
그곳에 보내졌음을
알고 있었다.

빛을 바라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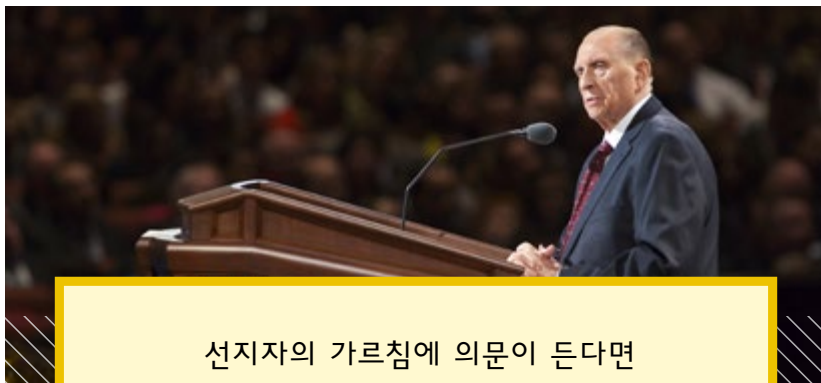
“현재의 상황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듯
느린 pace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약속하십니다.”
다미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부좌, “하나님의
빛에 대한 소망”, 라이프나, 2013년 5월호, 70쪽.

해답을 찾아서

내가 전세에서 충실한 사람이었다면, 왜 지금은 그런 사람이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지 상에 오는 모든 사람은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생에서 순종적이고 의롭게 생활하기가 수월하리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이생은 우리가 선택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진정으로 시험하는 곳이 되어야 하므로, 전세에 관한 우리의 기억은 모두 지워졌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육신을 받았으며, 그 육신은 우리가 영으로서 알지 못했던 식욕과 정욕, 그리고 유혹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육신에 속하며 육욕적이며 악마와 같[은]”(모세서 5:13) 것들에 더 쉽게 끌리는 상태가 되며,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모사이야서 3:19)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어야만]”(모사야이서 3:19)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선택을 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



선지자의 가르침에 의문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 복된 교회가 조직될 당시, 조셉 스미스는 초기 성도들에게 줄 계시를 하나 받았다.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선지자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교리와 성약 21:5)

또한,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행동할 때만 선지자가 된다.”¹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어떤 지도자가 특정한 경우에 한 특정 발언은 보통 개인적인 견해일 뿐 교회 전체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교회 전체에 효력을 미치지도 않는다는 것이 교회 통념[이다]. 그것이 신증을 기한 발언일지라도 말[이다].”² 선지자가 언제 “선지자로서 행동”하는지는, 가령 공식적인 자격으로 교회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처럼, 보통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분의 선지자가 무엇을 선언하시든”³ 우리가 그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얻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만일 우리가 간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주제에 대해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공부해 보고, 그런 뒤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가장 훌륭한 선택은 선지자들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권고를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축복받게 될 것이다.(니파이전서 2:11, 16, 19 참조) ■

주

1.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5:265.
2.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그리스도의 교리”,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88쪽.
3. 러셀 엠 넬슨,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가 되십시오”(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2016년 1월 10일), lds.org/broadcasts.

바느질 수업과 두 번째 기회

나는 피아노 선생님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다음 영적 속삭임은 제대로 따를 수 있을까?

벨렌 차파로

내가 열여덟 살이었을 때 우리 가족은 아르헨티나 남부에서 북부로 집을 옮겼고, 그곳에서 아버지는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셨다. 나와 우리 가족은 처음 몇 달 동안 그곳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다. 우리는 아직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참여할 만한 활동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피아노 강좌에 등록을 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마벨 선생님은 내가 만난 최고의 선생님이셨다. 나는 수업 시간이 정말 즐거웠고 피아노 실력도 빠르게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암으로 투병 중이시던 마벨 선생님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 선생님은 많은 시간을 들여 곳곳에 있는 치료사, 의사, 목사들을 만나고 다니셨다. 그러나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하셨다가도 몸이 나아지면 돌아오셔서 변함없이 밝은 모습으로 정성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셨다.

나는 매일 선생님께 피아노를 배우며 하나님의 계획이 주는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주시는 소망에 관해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수업이 시작될 무렵, 마벨 선생님은 다시 몸이 안 좋아지셨다. 한동안 선생님 소식을 듣지 못하던 차에 나는 전화를 걸어 선생님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튿날, 선생님의 따님이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말할 수 없이 슬펐다. 선생님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미루고 미루다 기회를 잃고 만 것이다.

나는 바느질 수업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지만 종교가 다른 분이셨다. 어느 날 수업 중에 복음 이야기가 나오자 선생님은 나에게 어떤 종교에 속하는지 물으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다닌다고 말씀드렸다. 선생님이 교회 이름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몰몬이라고도 해요.”라고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그 즉시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상기되어 말씀하셨다. “난 몰몬을 좋아한다!”

네가 몰몬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는 그 이유를 이것저것 말씀하셨다. 내가 복음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알아보셨다니 정말 기뻐다. 선생님은 우리 교회의 침례에 관해 조금 물어보셨다. 그리고 내 설명을 들으시더니 곧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종교에서 자라서 너희 교회에서 침례를 받을 수가 없겠구나.” 선생님의 종교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선생님께 어떤 점을 말씀드리면 좋을지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선생님께 물문경을 드려야 한다는 고요하지만 분명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것이 영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물문경을 구한 뒤 종이 한 장에 짧지만 진심을 담아 선생님께 드리는 글을 쓰고, 뒷면에는 흑시 질문이 있으실지 몰라 내 전화번호를 적었다. 그리고 물문경에 종이를 끼워 넣고 포장한 뒤 리본을 달아서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드렸다. 선생님은 물문경을 받고 매우 들뜬 모습으로 고맙다고 하셨다.

그 주 내내 선생님이 선물을 열어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지, 좋아하셨을지 좋아하지 않으셨을지 궁금했다. 다음 수업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나를 향한 선생님의 반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님은

나를 껴안으며 힘주어 말씀하셨다. “정말 좋았어! 정말 정말 좋았어! 네가 준 책은 정말 아름다워. 소개 부분에 나오는 판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이야. 그 책은 진짜야! 성구도 정말 좋더구나. 읽기 시작해서 이제 절반쯤 읽었던다.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지 뭐냐!”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본 나머지 학생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우리를 돌아보았다. 전에 내가 몰몬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학생 한 명이 몰몬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 책을 읽으니 울고 싶어지더구나. 슬퍼서가 아니라 축복을 받아서 말이야.” 선생님은 미소가 가시지 않는 얼굴로 계속 나를 안고 계셨다.

정말 기뻐다. 그 순간,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누도록 영감을 주시면, 우리는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분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

글쓴이는 아르헨티나 살타에 산다.



계명 = 사랑

사랑과 계명은 어떤 관계일까?



살렛 라카발
교회 잡지

계 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돌판, 규칙, 경계, 요구, 요건 같은 말들을 떠올리곤 한다. 아마도 자동적으로 사랑이 떠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계명과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실, 모든 면에서 관계가 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릴 적에 부모님이 번잡한 길가에서 놀지 못하게 하셨던 때를 기억하는가? 야채를 더 많이 먹도록 하거나 원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게 하셨던 때는 어떤가?

왜 그렇게 규칙이 많은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규칙이 항상 마음에 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보다 자란 지금은 부모님이 왜 그런 모든 규칙을 정해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가?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가장 완벽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규칙이나 계명을 주시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신다. 심지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어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받기를 바라신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비유를 들어 이 내용을 설명했다.

“[어떤] 부유한 아버지에게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직 어려 필요한 지혜와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케를 엠 스티븐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계1보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120쪽.



[원숙함]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재산을 나눠 준다면, 아마도 그 유산을 [탕진하게 될 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재산은 물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차지하는 위치와 명성까지도 네게 물려주고 싶구나. 내가 가진 것을 주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나와 같이 되려면 너 스스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내가 배워 온 바를 배우고, 내가 살아온 대로 산다면 [너는] 유업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내가 지혜와 [원숙함]을 익힐 수 있었던 율법과 원리들을 네게 알려 주겠다. 나의 모범을 따라 내가 터득한 대로 터득하면, [너는] 나와 같이 될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되리라.’¹

옥스 장로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당신께서 지니신 모든 것을 얻고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닮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계명은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여 그분과 같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디딤돌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새 계명을 주어 ...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너희에게 주어 그것이 너희에게 돌이켜 너희 구원이 되게 하려 하노라.”(교리와 성약 82:8~9)

번잡하고 위험한 길가에서 놀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특정한 계명이나 표준 이면에 숨어 있는 이유를 항상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닮아 가도록 인도해 주고 싶으셔서 계명을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면,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널 사랑한다!”라는 말을 적어서 보여 주시는 큰 표지판과 같다고 여기면 좋을 것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곧 우리도 그분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답하는 것과 같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왜 굳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답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사랑과 감사의 자연스러운

소산입니다.”²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움직일 능력부터 마시는 공기까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뿐이다.(모사이야서 2:21~22 참조)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4:15 참조)

하나님 아버지는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명은 곧 사랑이다.

더없이 단순한 사실이다. ■

주
1. 델린 에이치 옥스,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야호나, 2001년 1월호, 40쪽.
2.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은혜의 은사”, 리야호나, 2015년 5월호, 109쪽.

대화에 참여하기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1em;">일요일에 깊이 생각해 볼 것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닮아 가는 데 계명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지식이 계명을 지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1em;">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명을 공부하며 약속된 축복을 찾아보고 기록한다. • 계명을 지키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깝게 느꼈던 것은 언제였는가? 자신의 느낌을 가족과 친구에게 들려주거나 소셜 미디어로 나눈다.
---	--



왜 몰몬경인가?

나는 항상 몰몬경에 관한 간증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간증에 의지했었다. 그러나 이제 나도 내 간증을 찾겠다고 결심했다.

엘빈 제롬 라세다

이 미 성경이 있는데 왜 몰몬경이 필요할까? 수도 없이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십 대 시절, 나는 몰몬경에 관해 궁금해하면서도 직접 읽어 보려는 의욕은 없었다. 우선 한 가지 이유로, 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외에는 가족 중 유일한 회원이었던지라,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나에게 몰몬경을 읽어 보라고 하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간증 모임에서 많은 회원이 몰몬경이 참되다고 간증했다. 나는 최근 들어 그 점을 의심하기 시작한 참이었다. 몰몬경을 아직 읽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그 책이 참되며,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자신만의 간증을 쌓아 보라고 권유했다.

나는 내가 사탄의 유혹과 꾀를 견뎌 낼 만큼 교회와 조셉 스미스에 관해 강한 간증을 가졌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회 지도자와 회원들의 간증에만 의지해 왔기에 나는 간증이 약했다. 그래서 그날부터 간증을 쌓기로 다짐했다.

나는 몰몬경을 읽어 보기로 했다. 몰몬경 소개 부분을 읽다 보니 이런 말이 있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몰몬경을 읽고 거기에 실려 있는 메시지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 다음 이 책이 참된 것인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볼 것을 권유한다. 이렇게 행하며 신앙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이 책의 참됨과 신성함에 대한 증거를 얻을 것이다.”(모로나이서 10:3~5 참조) 나는 그 말씀이 몰몬경을 읽어 보도록 내게 개인적으로 권유하고 있음을 알았다. 계속해서 몰몬경을 읽어 나가던 나는 이 책의 신성함과 참됨을 증거해 주는 성신의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물몬경은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 줄 것입니다**

“성경과 물몬경, 이 두 책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확신을 심어 줍니다. ... 지금은 물몬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 세계 110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회복의 진실성에 대한 영적, 실제적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물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셨습니까? 다시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커질 것입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앙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라이프나*, 2015년 11월호, 67쪽.

나는 물몬경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알게 되었으며 그 참됨을 의심했던 사실이 부끄러웠다. 학교에서 배운 것인데, 법을 다루는 판사들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사건의 증거를 세심하게 살펴본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물몬경에 대해서 그 반대로 하고 있었다. 그것을 읽어 보기도 전에 판단부터 했던 것이다.

물몬경을 다 읽자 나는 마음이 겸손해졌으며 믿음을 지킬 용기가 생겼다. 또한, 다시 물몬경을 읽을 때 함께 읽을 동반자가 생겨서 기쁘다. 우리 할머니는 내가 처음으로 물몬경을 다 읽어 갈 무렵에 침례를 받으셨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시고,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라는 굳은 간증이 있다. ■

글쓴이는 필리핀에 산다.



최윤환 장로
철심인 정원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화되어

선지자의 말씀을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저는 제 인생을
제가 바라던 삶에서 주님께서 제게 바라시는 삶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던 때, 아버지는 저희 형제들에게 각자 자신이 선택한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 시간이면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기자, 아버지는 가족들이 같은 종교를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때 제 남동생은 외삼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교회를 더 알아보시겠다며 동생과 외삼촌과 함께 교회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미난 상호 향상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리고 세미나리가 어떻게 청소년들을 영적으로 강화해 주는지를 보면서 교회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열여섯 살 때 부모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고, 그 후 7개월에 걸쳐 저희 가족들과 친지들 중 스물세 명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활동에 충실하고, 복음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경전과 교회의 여러 서적 및 교재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몇년간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교회에서 굳건하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1. 세미나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경전을 공부한다.
2. 선지자의 권고를 듣고 실천한다.

경전에 담긴 힘

저와 동생은 가정에서 경전을 공부하는 것 외에도 세미나리와 상호 향상 모임에 충실히 참석했습니다. 당시에는 주일학교가 오전에 열리고 성찬식은 늦은 오후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는 거리가 꽤 멀었기에, 저희는 주일학교 모임 후에도 성찬식 때까지 교회에 남아서 세미나리 수업을 듣고, 방문을 다니고, 다른 회원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젊은 개종자들이 많던 시절이어서, 저희는 함께 배우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아론 신권 정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고, 청녀 반에서 봉사하는 청녀들과 함께 협력하며 부름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정원회와 반에 속한 친구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웠으며, 함께 활동을 계획하고, 현명하게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세미나리에서 배우는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숙제를 하다가 너무 피곤하거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면 세미나리 교재를 펴서 공부를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정신이 맑아지고 더 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방법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힘든 시간이 올 때면 변함없이 경전이나 연차 대회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충전합니다.

한국의 많은 중 고등학생들은 학교에 다니고 늦게까지 공부를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 세미나리와 상호 향상 모임에 참석할 때, 축복을 받아 새로운 힘을 얻고 학교 공부도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학교 다니는 동안 다른 여러 상황에서도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지리 시간에 선생님께서 미국 유타 주에 관해 가르치시다 교회에 관한 잘못된 이야기를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두의 앞에서 선생님 말씀을 정정해 드리는 것이 나올까, 수업이 끝난 뒤 조용히 말씀드리는 것이 나올까?' 순간, "교회에 대해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과 논쟁하거나 그 사람을 불쾌하게 하지 마세요."라는 세미나리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업 중에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야 하며, 또한 선생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그 교회의 회원이라고 말씀드리며 수업 시간에 언급하신 잘못된 내용을 정정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론인 줄 몰랐단다. 이야기해 주어서 고맙구나.” 선생님은 다음 수업 시간에 본인이 잘못 전하셨던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정정해 주셨으며, 변함없이 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저는 세미나리 선생님이 주셨던 권고에 감사했습니다.

군대인가, 선교 사업인가?

어릴 때 제 꿈은 장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육군 사관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선교사 봉사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군 사관 학교에서 장교가 되는 과정 중에는 선교 사업을 위해 휴학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 서울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대회에서 스피처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이 청소년들에게 주시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들었습니다.

- a. 세미나리에 참석하십시오.
- b. 선교사로서 명예롭게 봉사하십시오.
- c. 성전에서 결혼하십시오.
- d. 승영에 이르기 위해 힘쓰십시오.

저는 김볼 회장의 권고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구를 떠올렸습니다.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선교 사업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지자의 말씀에, 저는 주님을 신뢰해야 하고, 선교 사업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군 장성이 되겠다는 꿈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구가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육군 사관 학교에 가려는 계획은 접었지만, 당시 한국에서는 젊은 남성이라면 누구나 3년간 군 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 부산 선교부에서 1년 동안 봉사한 뒤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3년간 군에서 복무했고, 그 뒤에 선교 사업을 1년 더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 서울 선교부로 부름을 받아 1년 동안 더 봉사했습니다.

“너 제정신이니?”

저는 귀환 후에도 다시금 선지자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선교 사업에서 돌아온 뒤에 아직 학업을 다 마치지 않은 상태였지만 결혼을 하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기 전에 먼저 학업을 마치고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 결혼하기 위해 곧바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청소년 활동에서 만난 사이였으며, 제가 선교 사업을 하기 전에도 좋은 친구 사이였기에 서로 잘 알았습니다. 아내의 친구들은 “너 제정신이니? 살아갈 돈도 없잖아!”라고 들었지만, 저희는 제가 귀환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선 지자와 사도들의 권고를 따를 때 여러분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1. 경전을 공부하고, 세미나리에 참석하며, 와서 나를 따르라 공과에 참여하며, 청소년과 전임 선교사 모두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활용하십시오.
2. 선지자의 권고를 듣고 실천하십시오.
3. 모든 일을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하십시오.

저희 부부는 주님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세상적 통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면서 삶에 많은 축복을 받았으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깨닫지 못했을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하라는 주님의 권고(모사이야서 4:27 참조)를 따르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사회의 가르침과 다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시간표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살아 있는 선지자가 계시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음으로 얻게 되는 것”(교리와 성약 130:21)임을 압니다. ■



로버트 디 헤일츠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저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속죄는 모든 복음 진리의 근거가 되는 기초입니다. ...

감사란 고맙게 여기는 마음과 행동으로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 우리를 들어 올려 주며 강화해 주는 다른 사람의 친절함이나 봉사나 보살핌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은망덕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협조하거나 도와주었을 때 그것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태도이며 더 심한 경우에는 도움받은 것을 알면서도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크게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감사의 표현과 느낌에는 정결하게 하거나 [치유하는 아름다운 특성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똑같이 온정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해 줌으로써 고요한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감사는

또한 역경과 실패의 고통을 이겨 내게 하는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매일 드리는 감사는 과거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것이나 미래에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통해 도움과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감사는 신성한 원리입니다.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교리와 성약 59:7)

이 성구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즉 온 생애 동안 일어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신앙에 보탬이 되는 ... 곳은일과 도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경험이 [될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진실로 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았습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때 제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왜 이곳에 보내졌고 이곳 지상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캘리 엠, 15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해 참된 감사를 느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한 감사의 느낌을 기도로 표하기를 ... 기원합니다. ■

1992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우리들 공간



내 슬픔 아셨던 하나님

다벨리스 더블유 로드리게스,
도미니카 공화국

어느 일요일, 교회에 있던 나는 이제 내가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이 거의 끝나 가고, 머지않아 청년 독신 성인들과 함께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나는 우울해졌다. 주일학교가 끝난 후 기운을 내 보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기를 바라신다고 자신을 다독이려

애를 썼다.(니파이후서 2:25 참조)
복도에서 친구의 어깨에 기대 막 울음을 터트리려는 참에, 워드 서기 형제님이 다가오시더니, “다벨리스 자매님, 편지가 왔네요!” 하시는 것이었다. 형제님은 내 이름만 적힌 흰 봉투를 건네주셨다. 궁금증이 생긴 나는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 여쭙 보았다. 걸음을 옮기던 형제님은 축복사님께서 보내신 내 축복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내 슬픔을 아셨고, 내가 슬픔 중에 기쁨을 찾을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서 흐르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드디어 글로 적힌 축복사의 축복문을 받았는데, 그때가 바로 내게 축복문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

콰메나 쿼슨, 가나

힐라맨서 5:12

내게 이 성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만 역경을 이겨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발판이 된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서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나는 이 성구를 통해 어려운 시간 동안 굳건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당신의 독생자를 지상에 보내시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음을 나는 안다. ■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축복문을 읽으며 나는 다시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문을 주신 것과, 내가 그분의 딸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축복인지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신 것, 그리고 내 삶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빛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렸다.

슬픔이 찾아오는 순간에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을 찾으려 도와주실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사랑을 통해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이 놀라운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로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다.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행복할 수 있다. ■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나요?



애비 에프, 11세,
미국 버지니아 주

제가 새로운
학교에 처음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걸

좋아했고, 꽤 잘하는 편이었죠. 교실에
들어서서 친구들을 쪽 훑어보았어요.
왠지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
동안, 어떤 다른 반 친구의 옆에 앉게

되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해나였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 해나는 “와, 네
신발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걸. 니가
신고 있는 게 신발인지 쓰레기통인지
모르겠다.”

해나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일어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친구들의
옆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다음 날 쉬는 시간에도, 해나는
무례한 말들을 했어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해나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인 로슨 형제님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해나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것을
멈춰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고 저한테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엄마에게
해나가 말한 모든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폭발할 지경이었어요! 엄마는 “애비,
그 아이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도록 노력해 보렴. 때때로 사람들은
가정에서 무언가 문제를 겪고 있어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단다.”

그래서 저는 엄마와 로슨 형제님이
하셨던 말을 생각하며 학교에 갔어요.
그날 학교에서 해나는 저에게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말해 주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게 무례하게
말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해나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번 해에는
저와 해나가 같은 반이 되었어요. 우리는
정말 사이좋은 친구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

해나는 매일 무례한
말들을 했어요.





넬 에프 매리엇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저를 알고 계시는지, 저의 힘든 점들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꼭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제 기분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경전 구절을 찾게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경전을 펴더니 이런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경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잭은 그 경기들을 놓친 것 때문에 실력이 늘지 않을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잭의 동생인 찰스도 형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찰스가 가족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찰스는 하나님 아버지께 형이 축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도와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찰스는 형을 도울 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로마서 5:3~5) 이 구절은 힘든 경험을 통해 인내, 경험, 소망,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절을 통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제 손자 스튜어트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튜어트는 학교에서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스튜어트와 그의 어머니는 친구를 찾기 위해 도와 달라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쉬는 시간 종이 울릴 때, 스튜어트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스튜어트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고민에 대해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손자 잭이 열 살이 되었을 때, 잭은 유능한 축구팀에 들어갔습니다. 잭은 부모님과 함께 상의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일요일에는



있는 좋은 방법이 형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찰스는 자신의 기도가 형을 도울 수 있을 거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실 것입니다! ■

축복과 기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축복으로 가득 찬 보물 상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도는 그 축복의 "보물 상자"의 문을 연답니다.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

이 보물들은 여러분이 기도로 구할 수 있는 축복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받고 싶은 다른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식

용기

간증

위안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응답이 여러분이 원하던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듣고 계신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벌-써 선교사

제나 코포드의 인터뷰에서 발췌, 미국 유타 주

모 든 회원은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스테이크 회장님은 복음을 나누라는 도전 과제를 주셨어요. 학교에서 미국의 주에 대해 발표를 해야 했을 때,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스예요!

도전 과제

선생님께서서는 미국의 주 하나를 선택해서 그 주를 설명하는 작은 모형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선생님께 유타 주에 대해서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족 휴가로 유타에 여러 번 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벌집 주"라고 불리기도 하는 유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선교 사업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재미있는 사실

저는 골든 스파이크라는 최초의 대륙횡단 철도가 유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프로젝트에 솔트레이크 성전의 사진도 넣었어요. 또한,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에 대한 사실들도 적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의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였거든요.



친구들과 선교사들에게 저의 상자를 보여 주고 있어요.

벌집

저는 디오라마로 반 친구들에게 구주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여 주고 싶었어요. 저는 상자에 꿀벌 모양의 종이를 붙이고, 그 상자를 벌집 모양으로 디자인했어요. 벌집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꿀벌처럼 부지런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줘요.



제스가 알려 주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법

-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인다.
- 나쁜 말을 사용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잊어버리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다른 활동을 찾아본다.
-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찾는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기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부모님의 허가서와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을 보내 주세요. liahona.lds.org에서 제출하거나(“작품 제출”을 클릭하세요)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선교사가 되는 것에 관한 정보

저는 제가 준비한 학교 과제를 전시장에 들고 갔어요. 모두 저의 꿀벌 상자를 마음에 들어 했죠! 선생님은 저에게 백 점을 주셨어요! 저는 사람들이 유타 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질문할지도 몰라요. 저는 빨리 자라서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이 복음을 나누고 싶어요!



엘리스 지켜 주기



메릴리 부른
실화에 근거함.

“너와 걷고, 대화하리. 그건 내 사랑의
표시.”(어린이 노래책, 78쪽)

대 니얼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친구들이 농구공을 들고
공원으로 가고 있는
걸 보았죠. 대니얼도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었어요.

“대니얼, 오늘은 너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구나.” 엄마가
말했어요. “네 동생이 지독한
감기에 걸렸어. 그리고 넌 아직
혼자 나가기에는 너무 어려.
미안하다.”

대니얼은 동생 엘리스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엘리스는 무릎 위에 장난감을
올려놓은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엘리스는 다섯
살이지만, 아직 걷지도,
말하지도 못해요. 엘리스가
심하게 기침을 했어요. 엘리스는
자주 아픈 데다가, 몹시 덥거나
추운 날에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먹을 때는 배에
연결된 튜브 관을 통해서 먹어야
했어요.

대니얼은 동생을 사랑했지만,
가끔은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항상
엘리스 위주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냥 다른
아이들과 밖에 나가서 놀고 싶었던
거예요. 대니얼은 짜증이 났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대니얼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항상
엘리스한테만 맞춰야 하잖아요!”
대니얼은 복도 끝에 있는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이틀 후, 엘리스의 감기가 훨씬
심해져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대니얼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를 돌보려 와
주셨어요. 엄마와 아빠는 엘리스를
돌보느라 그 주의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대니얼이
다른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데리고
나가 주셨어요. 하지만 대니얼은 이제
엘리스가 걱정되었어요. 그날 엄마에게
했던 말이 미안해졌어요. 엘리스
때문에 가끔 밖에 나가 놀 수 없는
것은 싫었어요. 하지만 엘리스에게
이야기할 때 엘리스가 미소를 지어 주는
것이 좋았고, 엘리스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졌어요.

대니얼은 엄마와 아빠가 엘리스를
집으로 데려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창밖을 쳐다보았어요.

갑자기 엄마의 자동차가 들어서는
것이 보였어요. 대니얼은 엄마를
만나려고 뛰어나갔어요.

“엄마, 지난번에 제가 화가 났던 날
엄마한테 엘리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대니얼이 엄마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도 대니얼을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네가 동생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단다. 항상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건
불공평해 보이지. 누구라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엄마는 엘리스가 우리
가족이라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

대니얼이 말했어요. “엘리스가 보고
싶어요.”

“엄마도 그렇단다.” 엄마가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마 내일쯤 집에 갈 수
있다고 하셨어.”

2주 후에, 대니얼과 엘리스는 초등학교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삶이 불공평해 보일 때, 여러분은
화가 나거나 걱정이 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
보세요.

- 여러분의 감정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 밖에서 놀거나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해 본다.
- 잘 되고 있는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본다.
-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이야기해 본다. 기분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한다.
- 여러분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교실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짝을 찾아서 원을 만드세요!”
초등학교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대니얼은 재빨리 앞으로 나가
엘리스의 휠체어를 잡았어요.

“엘리스가 제 짝이에요.” 대니얼이
교사님께 말했어요. 그는 엘리스의
휠체어를 앞으로 밀어 친구들과 함께
원을 만들었어요.

대니얼이 엘리스를 쳐다보았어요.
엘리스는 활짝 웃었어요. 대니얼도
엘리스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대니얼은 엘리스가 다시 집에 와서
기뻐요. 엘리스에게 특별한 오빠가
되어 주고 싶었어요. ■

글쓴이는 미국 오리건 주에 산다.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구주의 속죄는 왜 중요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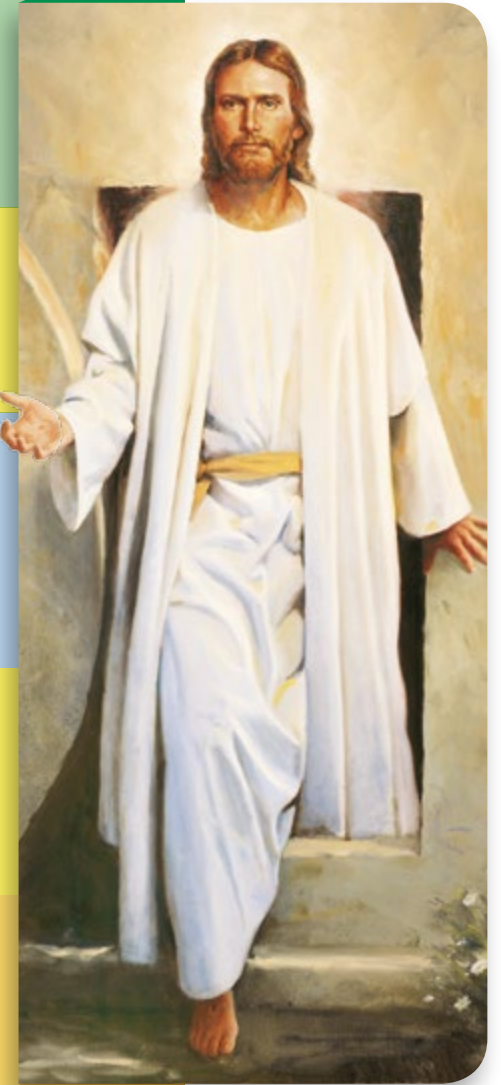
우리 구주의 속죄로 부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은 후에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속죄는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속죄의 일부로서, 예수님은 우리가 슬프거나 힘겨울 때 우리를 어떻게 도울지 알기 위해 모든 종류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시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도와주시며 강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강화되어”,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61~64쪽에서 편집 및 발췌.

우리들 이야기



저는 집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요. 저는 반 친구들에게 영어와 수학 공부를 도와주는 게 좋아요. 부모님과 구주께 순종하는 어린이들은 축복을 받을 거예요.
해나 에스, 6세(사진 찍힌 당시), 나이지리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걸 알기에 저는 기도 하는 게 좋아요. 그분들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저는 가정의 밤을 좋아하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오마 브이, 7세(사진 찍힌 당시), 에콰도르



저는 곧 열두 살이 되어 아론 신권을 받을 거예요. 아론 신권을 받으면 저는 성전에 들어가서 저의 조상님들을 위해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아벨 에스, 11세(그림 그린 당시), 페루



아난다 에이, 9세(그림 그린 당시), 브라질



여러분을 위한 질문

“우리 형(오빠)은 군인이예요. 저는 형(오빠)이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형(오빠)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대답을 liahona.lds.org로 보내거나(“기사 제출”을 클릭)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이름과 나이, 스테이크나 지방부의 이름, 그리고 부모님의 동의서도 함께 보내 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셨어요. 그분은 니파이 백성에게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모인 사람이 아주 많았는데도, 모든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아픈 사람을 모두 낫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니파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분이 니파이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족과 함께 가난한 어린이들을 방문해서 장난감과 음식을 주었어요. 저는 제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것에 너무 행복했어요.
리아 시, 7세, 멕시코 치와와



“나의 손이 되어라”, 케이트 피, 11세, 미국 유타 주



이 도전 카드를 잘라서 접은 뒤 보관하세요!



예수님

저는 사랑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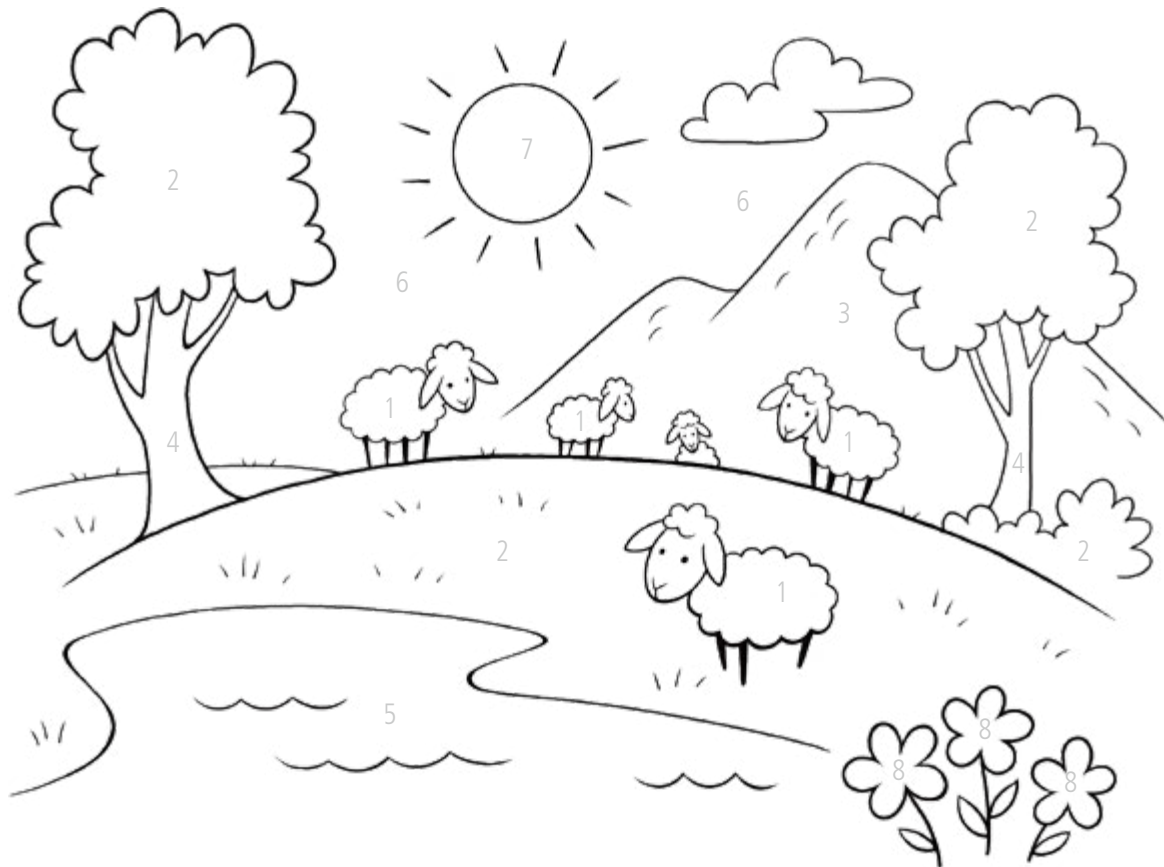
- 제3니파이 12:16을 외운다.
-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 주고, 안아 주고, 친절할 말을 해 줌으로써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제3니파이 12:1~9을 읽고 여러분이 이번 달에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선택한다.
- 아래에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


나는 물문경을 읽을 수 있어요

이달의 성구

경전 구절을 읽은 후, 그림에서 같은 번호를 찾아 색칠하세요!

- | | | | |
|---------------------------------|------------------------------|-----------------------------|----------------------------|
| 1 제3니파이 12:1~9, 16 | 3 제3니파이 13:6~8, 19~21 | 5 제3니파이 18:19~21, 24 | 7 제3니파이 19:11~26 |
| 2 제3니파이 12:19~20, 44, 48 | 4 제3니파이 18:1~12 | 6 제3니파이 18:35~39 | 8 제3니파이 20:1, 29~31 |





다른 양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셔야 할 “다른 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0:16 참조) 그분은 니파이 백성과 또 다른 땅에 사는 백성들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셔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방문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76~78쪽을 읽어 보세요. 그리고 다음 호에 실릴 읽기 도전 과제도 기대하세요! ■

오른쪽: 심화; 삽화: 제러드 벅스트랜드, 아래: 니파이인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그리스도, 테드 해닝거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아프거나 다친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분은 열두 명의 사도를 부르시고 그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바다 건너편에 사는 니파이 백성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열두 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신권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며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니파이 백성들에게
어린이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기도
하신 후, 모든 어린이를
축복해 주셨어요. 천사가
와서 그들을 방문했어요.

예수님은 니파이 백성들이 항상
그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



나는 우리 가족을 도울 수 있어요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
교회 제13대 회장

시온의 큰 장애물

교만은 근본적으로 경쟁심에서 나옵니다.

교만은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죄이며,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가운데 죄를 짓고 있습니다.(모사이야서 3:11; 제3니파이 6:18 참조) 경전에는 의로운 교만과 같은 말은 없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죄로 간주됩니다. ...

교만의 중심적인 양상은 적대심, 곧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적대심입니다. 적대심이란 “증오의 감정, 적개심, 또는 반대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능력으로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경쟁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교만하게 되면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하려 들게 됩니다. ...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에 더 치중하면 욕구, 욕망과 걱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엘마서 38:12; 제3니파이 12:30 참조)

교만한 자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힐라맨서 12:6 참조)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보다는 그들이 옳다고 믿는 진리를, 하나님의 신권 권능보다는 그들의 능력을, 주님의 놀라우신 업적보다는 그들의 성취를 더



내세웁니다.

...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뜻에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들의 뜻을 바꾸는 데는 흥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널리 퍼져 있는 교만이라는 죄의 또 다른 중요한 양상은 우리 이웃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고 그들을 낮추어 보려는 유혹을 받습니다.(힐라맨서 6:17; 교리와 성약 58:41 참조)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성과 의견, 업적, 부, 재능 또는 기타 세상적인 평가 기준을 내세움으로써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듭니다. 시 에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무언가를 가진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비교, 즉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즐거움이다. 비교와 경쟁의 요소가 사라지면, 교만도 사라진다.”(Mere Christianity [1952], 109-10) ...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 보다는 인간의 심판을 더 두려워합니다.(교리와 성약 3:6~7; 30:1~2; 60:2 참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속박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외침이 성신의 속삭임보다 더 [크고 강하게 들리게 됩니다. [인간의 논리가 하나님의 계시보다 우선하게 되며,] 교만한 자는 쇠막대를 [놓아 버립니다.](니파이전서 8:19~28, 11:25, 15:23~24 참조) ...

교만은 시온의 큰 장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은 시온의 큰 장애물입니다. ...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따르며 교만한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모사이야서 3:19; 또한 엘마서 13:28 참조) ■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4~7쪽에서 발췌. 문장 부호 표준화함.

통찰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인가?

“아버지가 해야 하는 가장 필수적인 임무를 꼽자면 아마도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과 모범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면, 그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열쇠를 주는 셈이 됩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아버지”,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94쪽.

그 밖에도 이번 호에는

청년 성인



중립 지대란 없다

미디어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디어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우리가 할 일은 지혜롭게 미디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44쪽

청소년

왜 몰몬경인가?

58쪽

나는 몰몬경을 읽어 보기도 전에 이미 판단을 내렸었다. 하지만 적어도 읽어 보기는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린이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신 예수님

76쪽

주님께서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신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